

NEWS SUMMARY

2008.10.24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KRX100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환율 (원/달러)
 -168.54	 -84.88	 -28.58	 +45.80
2,233.13	1,049.71	308.95	1,408.80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13712.5	13052.5	-660.1
외국인	12054.7	11049.6	-1005.2
개인	26898.7	28262.5	1363.8
기타	903.3	1191.1	287.8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323.9	409.8	85.9
외국인	303.7	289.2	-14.5
개인	6167.6	6045.1	-122.4
기타	112.9	163.9	50.9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39.50	-6.00	465,087	117,786
물 147.5	5.10	-2.65	121,800	17,770
풋 147.5	15.05	5.05	24,823	64,313

• 금리

종류	당일시세(년%)	전일대비
물	4.96	0.09
CD(91일)	6.16	0.01
회사채(AA-3년)	8.02	0.05
국고채(5년)	4.88	0.04

• 환율

단위: 원, 현물거래, 외환은행

통화	교역종목	교역상대
미국 달러	1384.15	1433.45
일본 100엔	1417.75	1468.25
유럽 유로	1770.84	1842.74
중국 위안	195.85	220.58

주가, 18년 공든 탑 1년 만에 무너지다

(1000→2000) (2000→1000)

“거래량 많고 처분 쉽다” 한국 증시 집중 매도
외국인, 환율상승→환차손→주식 매각 악순환
정부, 공매도 금지 연장-증권사 국공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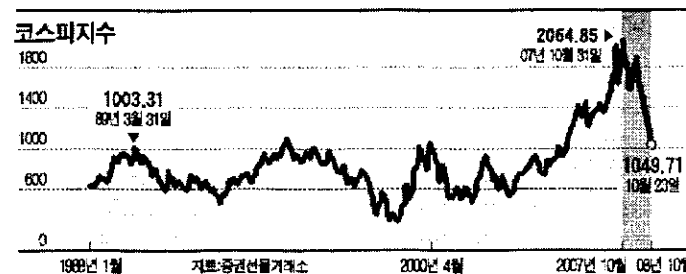
2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때는 1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코스피지수가 처음 1000고지에 오른 건 1989년 3월 31일이다. 이후 2000에 오르기까지 18년 4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7월 25일 2000을 넘어선 후 그해 10월 31일 2064.85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딱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깨먹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88포인트(7.48%) 떨어진 1049.71로 마감했다. 3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

스닥지수도 26.58포인트(7.92%) 내린 308.9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계기사 4, 5, E1, E2, E6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도 1001억 원어치를 팔아 국내 증시에서 이날에 만 4조792억원, 음 들어 32조3028억원을 빼나갔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바람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45.80원 오른 1408.80원으로 마쳤다. 3거래일 만에 93.8원이 뛰면서 98년 9월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 1400원 선을 넘어섰다.

KB투자증권 김성노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매도 공세가 환율을 밀어 올리고, 이 때문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매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의 전원지는 미국·유럽의 금융회사이지만 정작 이로 인한 충격

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세계적인 달러 가뭄이 이어 지자 신흥시장에 들어갔던 글로벌 투자자금이 선진국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벨로루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아르헨티나가 위기설에 휘말리면서 자금의 이탈 속도는 더욱 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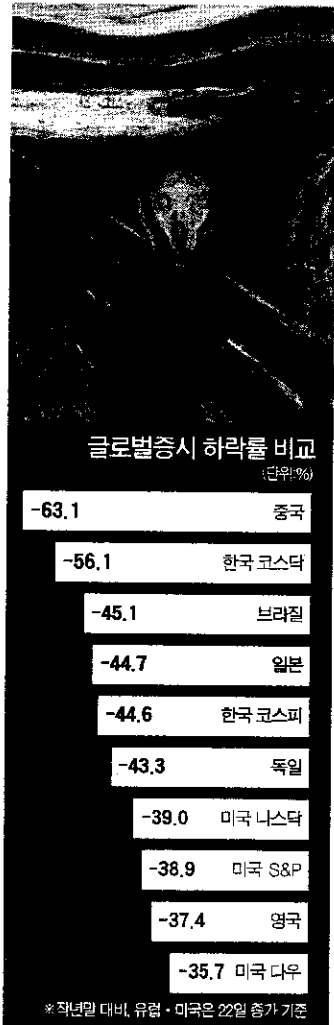
졌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내가는 표적이 되고 있다. 거래량이 많아 주식을 팔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한 주식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증권·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국공채를 사줄 방침이다. 이들이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채권을 급하게 팔아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농신한증권 정의석 투자분석 부장은 “최근 금융시장 혼란은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이탈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다우지수는 보합세로 출발했다.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주가 1년만에 반토막... “바닥 모르겠다”



연기금 이외 매수세력 실종...작은 악재설에도 ‘출렁’

외환시장 거래량 격감...역외선물환 시장에 휘둘러

증시가 무너지고 있다. 모두 주식을 팔기만 할 뿐 연기금을 제외하면 ‘사자’가 없는 매수세 공백으로 코스피지수가 장중에 100포인트나 추락하는 등 증시가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아젠 코스피 1000마저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장중의 코스피 최저점(1028.50)은 지난해 11월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점(2085.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5년 6월 1000을 뚫고 2000 고지를 밟을 때까지 2년4개월간 파죽지세로 올랐던 코스피는 1년도 채 안돼 1000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비상대책도 안 통해 투자심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도 펀드 대량 환매에 대비,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증시는 좀처럼 회복을 위한 계기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코스닥시장은 한때 거래 정지

이날 우량주들의 주가는 처참할 정도로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3만5500원(6.99%) 떨어진 47만2500원에 마감해 2005년 7월1일(49만4000원) 이후 3년3개월여 만에 50만원 아래로 추락했다.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창구로 매물이 쏟아졌다. 하

이닉스 현대건설 등은 하한가로 밀렸고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 LG전자 등 간판 종목들이 모두 5% 이상 급락했다.

이에 따라 조선주의 대표주자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75%나 폭락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포스코 주가도 1년여 만에 64%를 반납했고 신한지주와 LG전자 등은 고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하한가 종목만 유가증권시장은 118개, 코스닥시장은 234개에 달했다. 특히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종목은 유가증권 638개, 코스닥 669개 등 모두 1307개나 된다.

증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중에 100포인트를 넘는 심한 변동장세를 연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선물가격 급락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들어서만 6번째로, 올 들어서는 10번째 조치다.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코스닥시장에선 아예 20분간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내려졌다.

외국인은 이날도 1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최근 지수 급락을 부추기고 있는 프로그램 차익거래도 2600억원 이상 순매도로 끝났다.

문제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뻔했던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장은 “지금 투자심리는 건드리기만 하면 폭락으로 이어질 만큼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일하게 남은 처방은 추가 금리인하 정도지만 지금 지수대는 정책으로 해결할 단계를 지났다”고 지적했다.

환율은 10년4개월 만의 최고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80전 오른 1408원8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1998년 6월17일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는 것은 10년1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선물환(NDF) 시장의 달러 매수세에 휘둘러 전날보다 57원 급등한 142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한때는 1436원까지 폭등했다.

외환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모습이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탓에 약간의 달러 매수 주문만 들어와도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날보다 1억6000만달러 줄어든 30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하루 거래량이 25억3000만달러로 2년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21일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이 80억달러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밤 역외선물환시장(NDF)의 환율 상승이 다음날 아침 개장가에 반영되고 이후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의 달러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단숨에 50원 이상씩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은 거의 막혀 있어 수급 불안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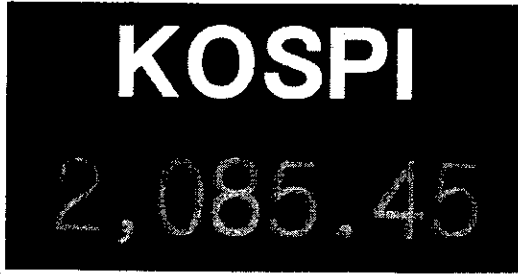
박해영·유승호 기자 bono@hankyung.com

코스피 지난해 10월 30일 대비 49.2% 하락,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1년 새 24.3% 하락, 9월 취업자 증가 수 1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 실질소매판매 증가율 작년 평균 5.3%에서 8월 1.5%로 급락, 2분기 설비투자 0%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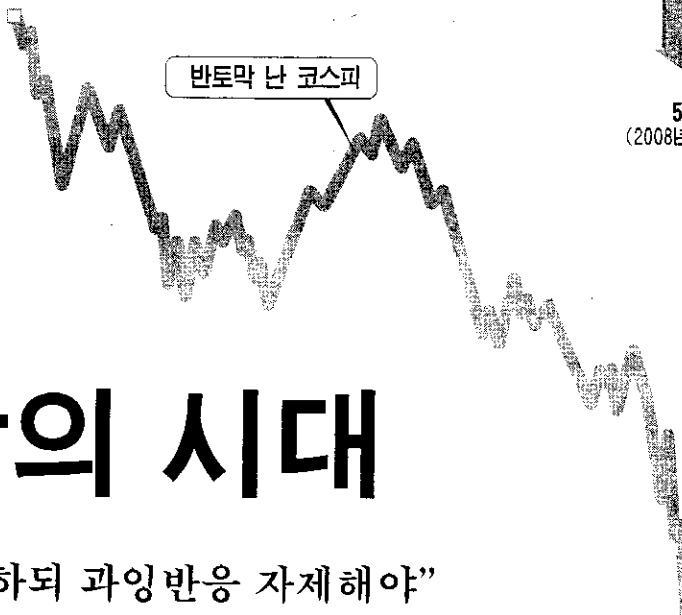
자산가치와 일자리가 반토막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반에 반토막 나는, 우리 경제가 어느 새 '반토막 시대'로 접어들었다.

불안정한 외환시장이 물가상승을 부추겨 개인과 기업 구매력이 뚝 떨어지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우리 경제 혈액순환을 마비시키고 있다. 세계경기 동반 침체는 수출동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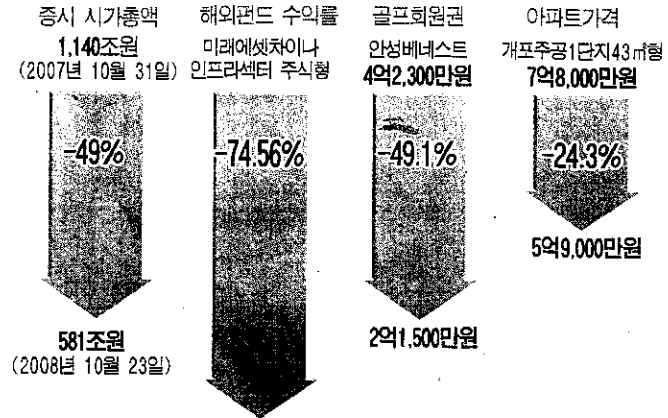
2063.14
(2007년 11월 1일)



반토막 난 코스피



1년 새 큰폭으로 떨어진 주요 지표들



반토막의 시대

전문가들 “현실 직시하되 과잉반응 자제해야”

지난해 10월 30일 2064.85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23일 장종 한때 1028선까지 밀리면서 1년도 채 안 돼 절반 수준까지 밀려났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029조원에서 533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은 110조원에서 47조원으로 줄어 두 시장에서 559조원 이상의 자금이 사라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지수 하락과 함께 개인투자자들과

펀드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외 해외 펀드의 평균 1년 수익률이 각각 -40%와 -52%에 달해 이 기간 동안 사라진 금액만 71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2006년 10월 셋째주 2473건으로 거래량 최고점을 찍었던 버블 세븐 지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말 230건으로 10분의 1 정도로

줄더니 급기야 올해 10월 셋째주(10월 9~15일)엔 23건에 그쳤다.

증권전문가들은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증시 격언을 떠올리며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위기는 금융 마비와 실물경기 위축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쳐진 것”이라며 “금융위기만 해소된다면 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97~

1049.71
(2008년 10월 23일)

2008. 10. 23 1년만에 반토막 난 장종 코스피 지수



98년 IMF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라. 지금은 그때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도, 기업에서 사람이 잘려나가지도 않는다”며 “10년 만에 찾아온 위기지만 바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버텨보자”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가계 부채와 부동산 금융 부실화가 전반적 금융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내년 상반기

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물 부문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연은 특히 “정부는 성장을 7% 등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장기 공급능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욱·김은정·박대민 기자

반토막의 시대 시리즈 A5면

시가총액 1년새 559조 증발...환란 방불

“친지들에게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했던 게 결국 화근이었죠.”

증권기업에 다니는 A씨(35세)는 대학생 때부터 10여 년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그는 지난해 집을 사느라 은행에서 3억원이나 대출을 받았지만 지인들에게서 또다시 8000만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해 남들이 손실을 보던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평균 30% 수익률을 올렸다. 이쯤에서 처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월 180만원의 대출이자에 조만간 원금 상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던 게 욕심이 지나쳤다. 이후 지속적인 주가 급락에 그가 보유한 5개 종목도 밀리기 시작해 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현재 70% 손실로 주저앉았다.

◆투자자 “할 말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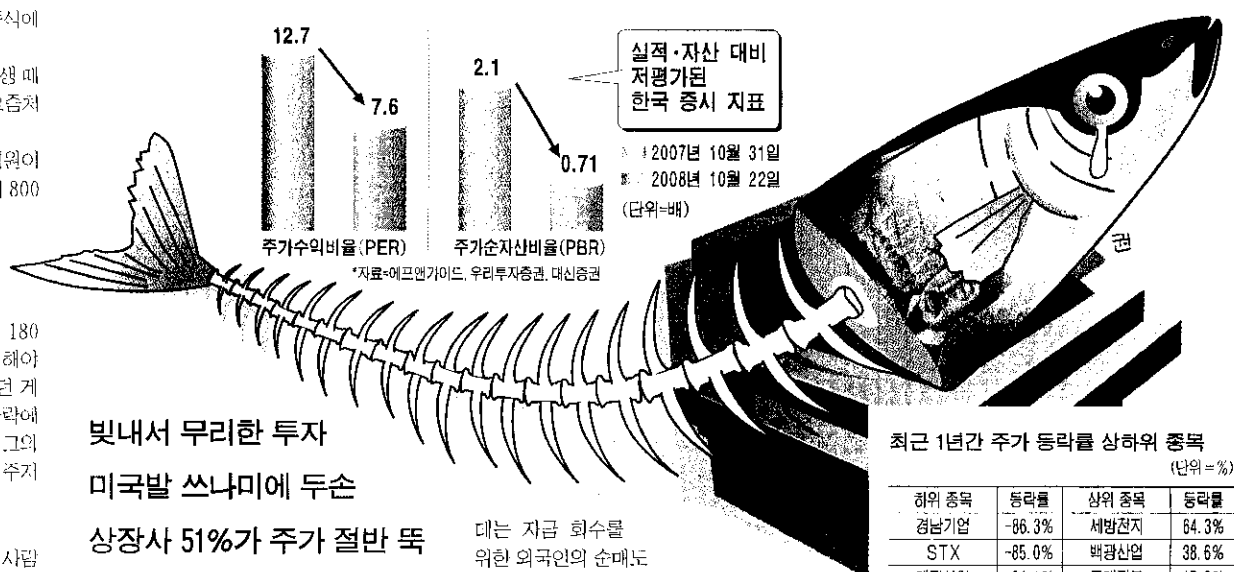
A씨처럼 증시 폭락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늘고 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올 초 ‘집 빼고 남는 돈 전부’인 5000만원을 ‘삼성TOP518 리더스파생상품펀드’에 쏟아부었다. 이미 많이 떨어진 금융주가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는 판매사 설명에 자산을 얻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펀드의 기초자산 중 하나였던 리먼!! 리더스가 파산하는 등 주가가 급락하면서 ‘깡통’이 됐다. 원가 숫자가 잘못 나온 것이려니 하는 생각에 판매사 지점을 찾았던 B씨는 결국 실신하고 말았다.

◆절반 이상 종목이 반 토막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지속하며 코스피가 지난해 10월 31일 2064.85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3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1030선이 무너졌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증가 기



빚내서 무리한 투자

미국발 쓰나미에 두손

상장사 51%가 주가 절반 뚫

준으로 고점을 기록한 지난해 10월 31일 대비 현재 반 토막 난 종목은 코스피에서만 348개로 전체 상장종목(680개, 우선주 제외)의 51%에 달했다. 또 주가 급락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495조원, 63조원의 시총이 증발해 두 시장에서 559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미국 부동산 모기지에서 시작된 외부 악재 영향이 시장을 뒤흔들면서 시가총액이 기업에 가진 현금보다 더 적어진 기업도 10년 전 외환 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의 주당순자산비율(PBR)이 22일 기준으로 0.71배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더 낮다는 얘기다. PBR 0.71배는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에 놓여 있던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급격히 반 토막까지 주저앉은

대는 자금 회수를 위한 외국인의 순매도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외국인 순매도는 코스피시장에서만 41조원을 순매도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26일 44.12%까지 치솟았던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 역시 22일 현재 29.58%까지 낮아졌다.

◆안전성 강조 상품도 손실

펀드는 장기투자라도 할 수 있다지만 만기가 정해진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현재 운용 중인 ELF 1154개 중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은 전체의 97%가 넘는 1126개에 달한다. 이 중 손실이 50% 이상 난 상품도 전체의 29%가 넘는 340개에 달한다는 것이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설명이다.

ELS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수 폭락으로 지난 10일까지 362개 ELS 상품이 원금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1년간 주가 등락을 상위 종목 (단위=%)

하위 종목	등락률	상위 종목	등락률
경남기업	-86.3%	세방전지	64.3%
STX	-85.0%	백광산업	38.6%
대림산업	-84.1%	동해물프	17.6%
STX엔진	-84.1%	KT&G	13.3%
일양약품	-83.4%	대한제당	7.4%
금호산업	-83.0%	한샘	1.6%
한전중공업	-82.2%	퍼시스	0.9%
한진중공업	-81.6%	SK텔레콤	-0.5%
STX팬오션	-81.3%	LG헬레름	-1.5%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0위 기업 대상. 작년 10월 31일-올해 10월 23일 종가 대비. 자료=증권선물거래소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은 공포에 사로잡혀 투매·환매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치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허남권 신영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욱·김동은·박준형 기자

주가, 부도위기 아르헨보다 더 떨어져

<달러환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주가가 주요국 가운데 유난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대우증권에 의뢰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년간 달러화로 환산한 주요국 주가지수 하락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가지수 하락률은 -62.3%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주요 50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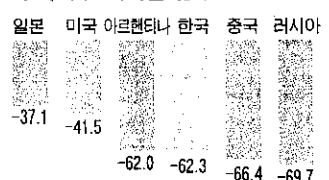
한국 증시 하락폭은 미국(-41.5%) 일본(-37.1%) 영국(-52.3%)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62%)보다도 컸다. 이 밖에 인도(-60.9%) 브라질(-60.5%) 대만(-52.3%) 싱가포르(-53.4%)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우리나라보다 낙폭이 큰 나라는 금융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아일랜드(-72.75%) 러시아(-69.71%)와 최근 경기 침체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중국(-66.4%)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달러화 환산 주가 하락폭이 큰 이유는 최근 1년 새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와 원화값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투자 손실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해 한국 증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을 뺄 것이라는 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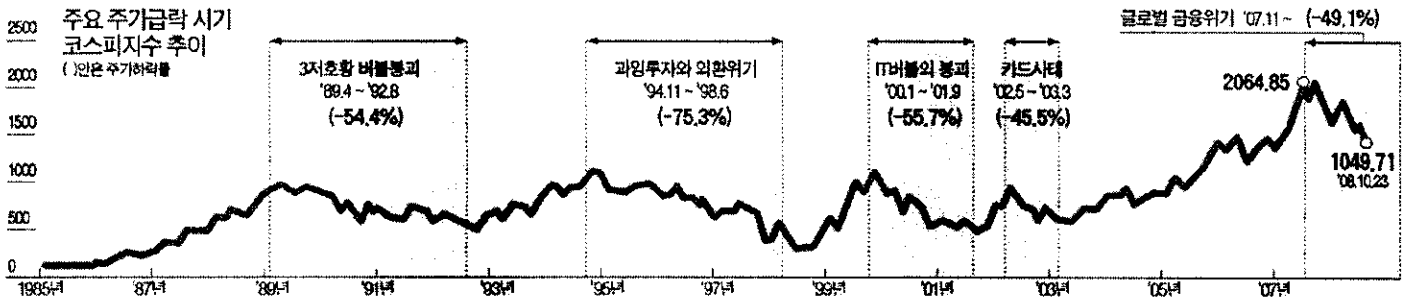
달러화 기준 최근 1년 새 주요국 주가지수 하락률(단위=%)



*2007년 10월 31일-2008년 10월 22일 각국 MSCI 기준. 자료=대우증권

반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그만큼 매력이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만 하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주가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



과거 증시 하락기 주가 흐름 보나-

‘반토막’ 주가 원상회복에 짧으면 7개월 길면 2년

과거 증시 하락기의 경우를 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짧게는 7개월, 길게는 25개월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증시에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하락장이 나타났다. 첫 번째 시기는 1989년 4월부터 1992년 8월까지 지속된 ‘동북아 버블 붕괴’다. 일본의 자산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3저(유가 금리 달러) 호황’이 끝나고, 물가와 금리가 뛰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 시기 코스피지수는 54.4% 하락했다. 이후 26개월 동안 148%

나 올랐는데,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5개월 걸렸다.

또 1994년 11월부터 44개월 동안 두 번째 하락장이 나타났다.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심각해 대기업이 잇따라 무너졌고 마침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1138에서 280으로 75.3%나 고꾸라졌다. 외환위기를 극복하자 구조조정 효과와 IT(정보기술) 붐이 겹쳐 증시는 다시 10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주가 회복기간이 1년6개월로 짧았다.

2000년 들어 2년 가까이 증시는 IT버블 붕괴를 겪어야 했다. 주가는 다시 55.7% 추락하면서 반토막이 났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악화됐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과 유사한 국면이었다”고 평가했다.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자 정부는 경기부양에 더욱 힘을 썼고, 2002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주가는 2배로 뛰었다.

2002년 초 상승장의 끝무렵에 ‘카드사태’가 터졌다. 무리한 내수부양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증시는 2003년 3월까지 45.5% 하락했다.

카드사태가 마무리되자 글로벌 저금리와 중국 이머징마켓의 가파른 성장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기 시작했다. 코스피지수는 55개월 동안 300% 넘게 뛰어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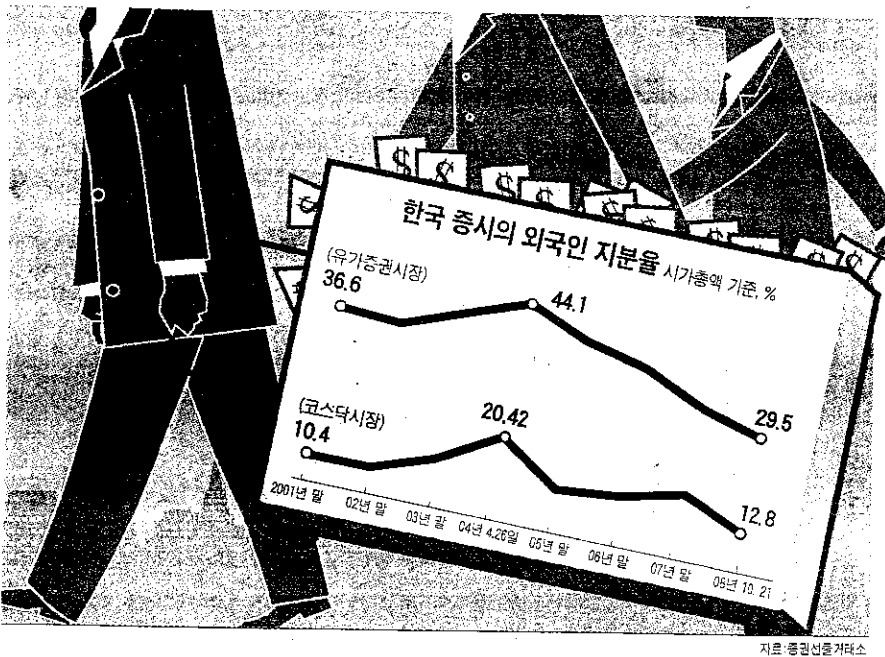
해 7월 2000선에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으며,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13개월 걸렸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전 세계 증시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확대돼 주가는 작년 10월 말 고점을 기록한 이후 1년 동안 49.1% 내렸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5개월이라는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번 조정 이 짧게 마무리되기는 힘들다”며 “한동안 지뢰밭 장세가 이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명 기자 longrun@hankyung.com

● 외국인 주식매도 공세, 왜 돈 급해진 헤지펀드, 손실 무릅쓰며 자금회수

주가가 7.5% 폭락한 23일 외국인들은 또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외국인은 이날 들어 단 하루만 빼고 계속 순매도(판 것에서 산 것을 뺀 것)하면서 5조 원어치를 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지만 한국 증시의 외국인 매도액 33억달러(유가증권시장)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단연 많다. 인도(28.6억 달러), 대만(26.8억), 남아공(25.8억)보다 월등하다. 이처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하고, 국가 신용도 불안까지 부추기며 우리 경제에 악성 코드 역할을 하고 있다. 증시 호황의 견인차였던 외국인이 이제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돌변한 것이다. 지난달만 해도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이라 분석이 많았다. 올 들어 34조원어치, 작년 포함하면 64조원어치를 팔고 있어 팔 만큼 팔았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될수록 사정은 달라졌다.



◆과도한 외국인 불안감

23일 한국 주가는 2005년 7월 수준까지 떨어졌다. 외국인이 3년 이상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빠지면 손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매도세는 거침없었다. 왜 이렇게 빠질까.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꽤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UBS자산운용의 제프리 원 전무(신용시장 담당)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 말 한국을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을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한국 기업들은 건실하지만 개인 부채는 부실하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 전망은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증시에 더 머물 이유가 사라지게 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국가 부도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디폴트 스왑(CDS)의 수수료(프리미엄)가 이달 들어서만 2.4% 급증한 것도 악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낮은 태국·말레이시아보다 높은 것이어서 불안정리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조사실장은 "위기국면에 들어가면 수치보다

는 추세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최근 몇몇 우리 경제 지표들의 추세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들의 공세

외국인 매도세의 뒤에는 투기성 자본인 헤지펀드가 있다. 지난달 공(空)매도 금지로 헤지펀드들의 매도세는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메리츠증권 심재엽 팀장은 "10월 말 결산되는 대형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손실로 밀려드는 펀드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 한국

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해외에서 위협하다고 과장하는가"라는 점이다.

삼성증권 임훈수 전무는 "한국에 대한 해외의 불안 심리는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해외언론이 우리 경제를 집중 비판하고 있는 것에는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론스타 사건'도 한 요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도 도쿄·홍콩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부산을 떨고 있

펀드 투자자들 환매요구에 대비하는 듯 환율급등·외국언론 보도도 이탈 부추겨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규모 자체가 배일에 가려 있지만, 업계에선 한국시장을 겨냥한 헤지펀드 규모만 14억 달러(2007년 11월 말 기준)로 추정한다. 일반 헤지펀드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 국내 미국계 모 증권사는 "올 초 거래량의 20% 정도가 헤지펀드였다"고 밝혔다.

◆해외 소동에 실패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외국인 이탈 어디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자금회수가 끝나야 우리 증시가 안정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또 한국 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외국인 비중보다 높아 추가적인 외국인 이탈이 있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노회진 박사는 "OECD국가 외국인 비중 평균인 25%로 추산하면, 한국

이달중 주요 신흥시장의 외국인 순매도액 단위:만달러

한국	31억3020
인도	28억6270
대만	26억7800
남아공	25억7500
태국	25억3700
필리핀	16억1800

인도네시아 : 7150

10월1~23일 기준, 남아공·필리핀·인도네시아는 22일까지, 인도·태국은 21일까지 기준, 순매도액은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뺀 것

자료:대우증권·블룸버그

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180억달러(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 UBS증권의 안승원 전무는 "왜 한국의 환율만 유독 많이 오르느냐가 가장 큰 수수께끼이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의존 탈피 기회"

일부에선 외국인 비중이 줄어드는 이번 기회가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주식시장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chosun.com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증시 2~3일마다 쑥대밭 ... 1000 개지면 펀드 환매 늘 수도

주요 국내외 펀드 수익률 (10월 23일 기준)

유형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자료:제프인				
	일반주식	중소형주식	배당주식	테마주식	코스피200인덱스	유럽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신흥국	유럽신흥국	남미신흥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펀드 수(개)	454	17	33	56	88	36	46	117	24	29	52	96	27	19	19
순자산(원)	34조 9000억	2500억	3조 400억	4조 4000억	5조 1000억	5100억	2조 9000억	8조 4800억	6800억	8200억	6400억	10조 6000억	1조 2000억	1900억	2200억
연초 대비 수익률(%)	-39.78	-38.27	-37.05	-29.54	-38.49	-35.66	-43.41	-48.22	-58.00	-48.98	-38.74	-56.32	-49.12	-42.80	-69.06



23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외환딜링룸의 딜러가 모니터를 통해 환율 시세를 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지난해 펀드 투자로 쓸쓸한 재미를 봤던 주부 한도(38)씨는 올 초 국내 주식형으로 갈아탔다. 연말 집을 옮길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펀드 수익률은 하반기 들어 고꾸라졌다. 최근엔 원금의 30%가 넘게 손해 봤다. 한씨는 “손해 본 게 아까워 환매를 할 수도 없고,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까지 최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각광받던 펀드 투자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장기 투자의 효과를 믿고 묵묵히 버티던 투자자들도 곤두박질할 수익률에 양면자살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나마 본격적인 환매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위안”이라고 말했다.

◆실망 속 “ 지켜보지 ”=23일 동양증권증권금융센터 강남본부점에는 펀드 수익률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반 토막이 나버린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펀드를 해지하려 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지점 관계자는 “이미 환매 시점을 놓친 데다 손실이 너무 커져 쉽사리 돈을 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객장 분위기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삼성증권 갤러리야점 관계자는 “각종 투자자들은 거의 연초에 투자분을 댔 상태라서 최근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도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 회원 장

팔 기회 놓쳐 손실 커진 투자자들 자포자기 ‘반등 때 환매를 vs 환매 더 큰 손실’ 엇갈려

모(41)씨도 최근 적립식 계좌에 대한 자동 납입을 중단시켰다. 장씨는 “속이 상해 아예 수익률 현황을 보지 않기로 했다”며 “아예 물어두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지만 지금 돈을 더 넣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기가 바닥권에 접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워낙 불안하니 조금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교보증권 수원지점 전인원 대리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며 “요즘 같은 때 환매를 안 하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7월 이후 적립식 펀드 줄어=약세장에서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계속 불안한 것은 그나마 적립식 펀드의 힘이었다. 지난해 초 780여만 개에 그쳤던 적립식 펀드의 계좌 수는 펀드 열풍을 타고 올 6월 말에는 1500만 개로 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적립식 펀드마저 한 달에 10만 개씩 줄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자 펀드 설정액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자신은유희회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달 들어 21일까지 2112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 14거래일 중 8거래일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정부가 3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기존 펀드 투자금에는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펀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한국투자증권 마포지점 이정아 지점장도 “주가가 더 떨어져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 환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길 제프인 전무는 “정부 정책만으로 펀드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악화된다면 환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회원 김지섭(37)씨는 “내 돈으로 투자한 펀드는 그냥 놔둘 생각이지만 부모님 돈을 받아 넣은 펀드는 아무래도 환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굿모닝 신한증권이계용 펀드리서치 팀장은 “당분간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반등 기회를 이용해 차분히 손실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증권 조원제 연구원은 “지금 환매해도 달리 투자할 만한 게 없다”며 “다만 나라별 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최현철·고관 기자

chdck@joongang.co.kr

중앙일보

“펀드런 가능성 낮다” 81%

증시 전문가들 대다수는 자수 급락에 따른 펀드런(대량 환매)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했다. 펀드런이 발생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 아니며 환매를 단행하기에는 투자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적립식 투자 문화 정착도 환매 욕구를 자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향후 지수 반등 시 손실 회복을 위한 부분 환매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81%(27명 중 22명)가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했다. 반면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증시가 펀드런을 야기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기봉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아직 (펀드런을 야기할 만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최인호 하나UBS주식운용본부장 역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같은 국가 부도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펀드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환매를 단행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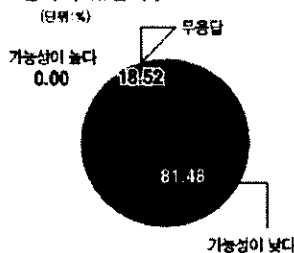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주가에 후행하는 일반 자금의 특성상 손실이 큰 상황에서 펀드런

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진균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해 손실 규모가 커진 상태여서 대량 환매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 제 정착기에 접어든 ‘적립식 투자

국내 금융시스템 붕괴상황 아니고
환매하기엔 손실 너무 크기 때문
향후 반등때 부분환매 염두에 두어야

현재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문화’도 환매 욕구를 자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박연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경기는 침체 상황이 아니므로 적립식으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거치식보다 적립식 펀드 투자 비중이 높아져 대량 환매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손실 회복을 위해 부분 환매를 단행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펀드런까지는 아니겠지만 (향후 주가 반등 시) 부분적으로 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문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주가 급락으로 단기적인 펀드런 가능성은 낮으나 주가 반등 시 환매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은기자 rocinante@sed.co.kr

/ 코스피 1,000도 흔들 /

투신권 매물폭탄에 증시 '녹다운'

3일간 무려 5,600억 팔아... 당분간 매도세 지속 전망
정부 '자금 지원 카드' 제시에도 투신권 반응은 냉랭
현금비중 높아져 반등 타이밍엔 유동성장세 이끌수도

코스피지수가 23일 또다시 7% 이상 급락하며 1,000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의 증시 급락에는 외국인과 함께 투신권의 매도공세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외국인은 전날보다 2,500억원 이상 '팔자' 세를 줄였지만 투신은 나흘 연속 매도세를 키워가며 2,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코스피 하락이 이어진 최근 3거래일간 투신이 내다판 주식만 5,6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투신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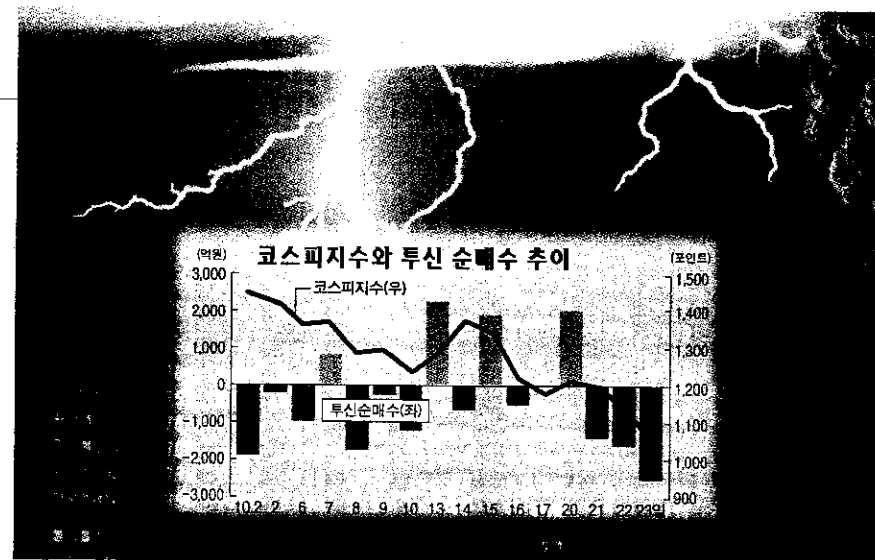
을 바라보다가 자칫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이 막대한 낙관적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이렇듯 예상과 같은 투신의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투신의 현금 비중이 높아져 주식 매수 여력이 생긴 만큼 향후 찾아올 유동성장에서 다시 한 번 '기관'의 힘을 보여줄 것이란 견해도 없지 않다.

◇정부 지원책보다 제 살길 찾기=정부는 이날 "투신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자금을 공급해주는 형식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

했다. 그러나 일선 자산운용사들은 이 같은 조치는 펀드런(펀드 대량환매 사태) 같은 극단적 상황이 닥쳐야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A운용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정부의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경영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옳다"며 "자산 손실을 투신사가 직접 떠안았던 과거 IMF 외환위기 이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사실 투신은 정중동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 이날 투신이 장중 한때 4,000억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 1,500억원 가까운 매수세를 연출한 것은 프로그램 비차익거래를 통한 순매수에 힘입은 것에 불과하다. 김영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최근 투신의 거래는 프로그램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며 "현 장세는 펀드매니저가 주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상황이 못 된다. 기껏해야 환매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동적 대응에 나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금비중 높아져... 유동성 장세 이끌까=최근 투신



은 펀드 환매에 대비해 자금 확보에 나서왔다. 그 결과 90%를 웃돌던 주식형 펀드의 주식비중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85.62%까지 낮아진 상태다. 특히 최근 환매가 급증한 해외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 비중은 81.89%까지 떨어졌다.

가장 우려되는 펀드 환매 움직임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날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달 들어 21일까지 2,112억원의 누적 순유출을 기록했고 해외 주식형펀드 역시 7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2억3,953억원이 빠져나갔다. 한편에서는 투신사들이

현금 확보에 꾸준히 나서는 만큼 현 지수대에 대한 바닥권의 인식이 커지면 다시 한번 기관 매수세를 이끌 수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한종석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불리 움직이긴 쉽지 않다"면서도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실탄(현금)은 다들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지만 큰 폭락 뒤에는 20~50% 수준의 되돌림 현상이 찾아오는 만큼 지금의 매도세는 조만간 멈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fiat@sed.co.kr

서 울 경 제

한국증시 과도한 공포가 문제다

"드러나지 않은 악재는 거의 없다. 다만 공포가 증시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다."

바닥을 가늠하기 힘든 주가 하락은 도대체 언제쯤 진정될까.

23일 코스피는 또다시 하루 만에 7%나 급락했다. 이제 우리 증시 하락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혹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주요 증시 전문가들로부터 증시 하락의 원인에 대해 들어봤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고장난 걸까.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락세에 대해 한국경제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는 공포심리가 자수를 끌고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 전반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 이미 다 알려진 악재라는 점에서 새로운 하락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악재의 정도와 지속기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를 낳고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오늘 하락은 특별한 요인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다"면서 "경기분화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호 JP모건 리서치 센터장도 "한국은 미국처럼 대형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부도가 나타난 적이 없다"면서 "단지 설만 난무한 채 아직 아무것도 터진 것이 없어 더욱 공포에 가까워졌다는 느낌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증시 이머징 딱지가 문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환경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기본 전제다. 그런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 한국 증시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외 전문가
시황 진단
및 전망



이종우(리서치센터장)

소속	• HMC투자증권
하락 원인	• 경기 둔화 우려 • ELS 제도 몰락
저점	• 4자렛수 지수 위험 • 올해 안에 원만한 추가하락 가능
반등조건 및 시점	• 유동성 공급 필요 • 내년 하반기 초까지 한 차례 큰 폭 상승 예상
한국 신용위험	• 환율 등 이머징 리스크 존재



서영호(리서치센터)

소속	• JP모건 서울지점
하락 원인	• 유동성 고갈 • 기업이익 몰두
저점	• 과매도 국면이나 추가 하락 가능
반등조건 및 시점	• 유동성 지급시 베어마켓틀러 가능 • 달러 외에 국내 유동성 지원 필요
한국 신용위험	• 전 세계 시장 연계성 높아져 변동성 커짐



장득수(주식운용본부장)

소속	• 슈로더투자증권
하락 원인	• 실물경제 전이 • 해외자금 유출
저점	• 과매도 국면으로 조정시기 단축 예상
반등조건 및 시점	• 기업부도 및 구조조정 과정 거치며 반등
한국 신용위험	• 외환보유액 안전 • CDS 프리미엄 과다



이영원(투자전략실장)

소속	•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락 원인	• 실물경제 전이 • 내부적 신용문제
저점	• 신용, 실물 위기 해결 전까지 예측 불가
반등조건 및 시점	• 신용경색 해결 전까지 혼란 예상
한국 신용위험	• 리스크 심각 • 경기부양보다 신용회복 우선

신용위기·실물경기둔화등 악재 다 나와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경색 풀리면 상승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진경제가 다급해진 만큼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푸르덴셜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실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이 차별화되는 과정"이라면서 "한국이 그동안 신용수준을 높이지 못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으면서도 돈을 빼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하락폭을 키우는 원인이라 지적이다.

장득수 슈로더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한국이 이머징 시장 중 가장 크고 효율

적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급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자금을 먼저 빼고 있다"면서 "한국의 펀더멘털 불안 얘기는 사실 본질적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등 시나리오는

그렇다면 우리 증시 반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현재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조만간 불안감이 진정된다면 유동성 공급에 따른 반등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단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베어마켓 랠리(악재장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종우 센터장은 "반등을 이끌 것은 결국 유동성이다. 지금이야 신용위기가 크니까 정부들이 돈을 부어도 작동을 안 하지만 내년 2분기나 늦어도 하반기에 상황이 정리되

면 유동성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하반기 초에 4-5개월 동안 주가가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영호 전무는 "유동성이 제공될 때 베어마켓 랠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달러 유동성은 한국은행이 지급해 준다고 해도 국내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반등을 위해선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득수 본부장은 "결국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곳은 무너지고 구조조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원 실장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한국 국채의 미국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등 신용위기 해결 기미가 보이거나 환율의 안정, 정치적으로는 글로벌 신용위기 공조 시스템 구축 등 한 가지라도 먼저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규·이소아·이재환 기자

매 일 경 제

“반토막 펀드, 포기했는지 전화도 없어요”

“차라리 환율이 주가였으면 좋겠어요.” ‘현대차가 사이드카’ 수혜주래요.”

코스피가 7.48%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45.8원이나 급등한 23일 증권가에서는 이제 ‘공포’에 익숙해진 듯 자조섞인 말이 쏟아졌다. “이제는 냉정을 찾고 선택할 때가 온 것 아니냐”며 코스피지수 1000선 붕괴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 증권사 객장은 오히려 차분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이상할 만큼 투자자들로부터 연락이 평소보다 더 없다”며 “지수 1000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선택의 시간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수 1000 붕괴 여부는 투자자들이 인내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떨어지는 칼날에도 굳은 마음으로 버틸지, 아니면 루네에 동참할지를 선택할 마지막 고민의 시간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개인투자자는 “가족 물려 퇴직금 일부를 주가연계증권(RLS)에 투자했다”며 “계속 손실이 나면서 환매하려 했지만 증권사 직원이 만류해 참았는데 이제 어쩌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 ‘극심한 공포’ 할 말 잃은 객장

‘인내 vs 투매’ 가를 상징지수 1000 눈앞 신참 증권맨 “투자자 응대하기 괴로워”

황황장에 입사한 증권사 신참들에게는 요즘 폭락장이 더 험하다. 지난해 초 입사한 한 증권사 영업직원은 “투자자들 응대하기가 괴롭다”며 “일부 무지경력이 있는 고객들과는 술 한잔 하던서 푸념하며 풀지만 지난해 폭지에서 ‘장 좋다’며 처음 뛰어들어 투자자들의 욕설과 함의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날한 경제상황에 극도의 공포감이 더해지면서 각종 증시 관련 농담도 나돌았다. 오후 2시 현대자동차의 실적발표 후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5% 넘게 급등하자 “현대차가 최근 급격히 판매가 늘고 있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 수혜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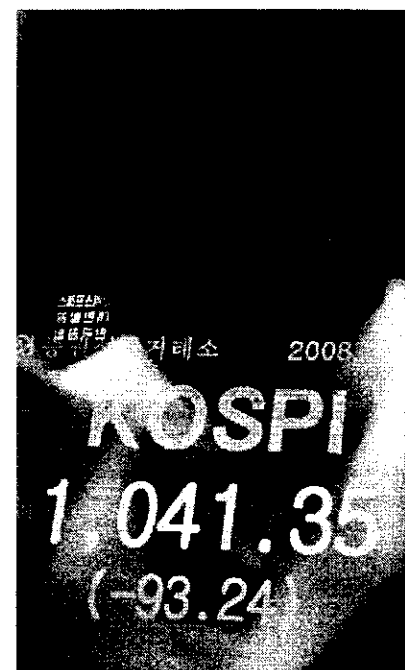
올들어 증시가 급락하면서 매대를 중단시키

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가 빈번히 발동한 것을 빗댄 말이다.

A증권사가 내놔다는 ‘직관적인 바닥 증거’라는 주제의 시황 보고서도 메신저를 왔다. 일간지 1면 헤드라인에 주가폭락 기사, 투자설명회에 투자자 실종, 애널리스트의 공격적인 목표주가 하향 조정 등이 바닥에 다가서는 증거라는 내용이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잇단 자살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게 된다는 증권맨도 많다. 한 증권사 영업직원은 ‘고객들의 투자 손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환율이 아니지만 요즘 동료가 자살이나 결근이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river@



23일 장중 한때 1030선이 붕괴된 코스피지수는 결국 전날보다 84.88포인트 내린 1049.71로 마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awei23@

신문 1면 주가폭락 기사·목표가 하향 속출

곳곳에 증시 바닥징후

주식투자자 김 모씨는 1년6개월간 갖고 있던 세종공업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다가 시장이 급락한 23일에 원금의 30%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차익실현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다가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곧 회복되겠지…”라고 믿어왔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다.

증권가 속설에서 진정한 바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식을 내던질 때”라는 말이 있다.

물론 국내 수급상황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규모 매도에도 주가는 급락할 수 있어 이 같은 징후로 바닥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 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채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하향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임을 알리는 다양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공포심리에 휩싸여 행동하지 말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전문가들은 바닥 징후로 △펀더멘털(PER·PBR 등) 측면 △기술적 분석지표 △심리적 요인(공포심리 극대화) 등을 들고 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PER(주가수익비율)가 9.2배(MSCI코리아 기준)로 바닥권이라 할 수 있는 PER 10배 이하로 내려간 지 오래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7배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과 적정주가를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증시의 수난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사례로 언급됐다.

증시 바닥 징후들

- PER·PBR 등 최저 수준 도달
- 증권가 기업 실적·투자의견 본격 하향 조정
- 5개월 연속 음봉 음봉 기록
- 증권가 패닉 극대화(증권맨 자살)
- 증시 반등 희망 잃고 투매

기술적 분석지표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음봉(월봉 차트에서 월달 종가가 월초 시가보다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도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징후다. 임동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5개월 연속 음봉은 주가가 5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심리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주식시장이 침체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심리도가 침체권이면 바닥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주가 폭락 기사가 자주 실리고 △투자설명회가 썰렁해지고 △증권사 영업직원과 투자자 자살 소식 등도 끊이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기호 기자

장기투자자에겐 지금이 기회일수도

삭풍이 부는 펀드 시장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펀드시장 활성화 위해 장기 투자 펀드 세제혜택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펀드 르네상스’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춥고 어둡기만 하다. 상당수 펀드들이 반토박이 나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높다.

모 증권사 서울 압구정지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노리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직원들만 불확실한 가입 규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 주식형 펀드 대량 환매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어서 근원 처방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펀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내년 이후 시장의 위

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이 고수익과 함께 세금 부담 경감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를 바라보면서 당장 환매에 나설 것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 갱신을 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회사채 펀드의 경우는 최근 불거진 회사채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난 다음에 투자하라는 견해가 많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치식만 세제 혜택이 있는 회사채 펀드의 경우 가족 명의로 일정액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도 한 펀드에만 넣기 보다는 일정 한도 안에서 몇 개 펀드에 분산투자하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B3면
박준형 기자

장기 주식형·회사채펀드 세제혜택 준다는데...

기존 국내 적립식펀드도 계약갱신하면 稅경감

“3년 이상 투자 펀드에 세제혜택을 준다는데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지난 19일 정부 당국이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수십 %의 펀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제혜택 조금 준다고 펀드에 새로 가입할 의욕이 안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증권사 등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 전문가들은 지금은 비록 혜택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시장이 안정되고 수익률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되면 세제혜택 펀드에 왜 가입하지 않았나 후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내년말까지 가입해 3년동안 유지해야 적용 회사채 펀드는 거치식만 혜택...잘 살펴야

일단 이번엔 추가된 세제혜택 펀드들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장기 국내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펀드 두 가지다.

해외 주식형펀드와 국공채나 금융채에 투자하는 일반 채권형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약관상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중에서는 3년 이상 적립식(거치식 제외)으로 납입한 펀드들에 한정된다.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가능하며 1년차 때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년차부터는 세제혜택이 없다.

회사채펀드(약관상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는 현재 국내에서 이 같은 유형의 펀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도이치코리야채권, 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 동양브리파세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이 회사채 비중을 70%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 펀드들은 약관을 변경하면 회사채펀드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회사채펀드가 없는 운용사들도 회사채펀드를 신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펀드는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가입한도가 3000만원이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다.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된다(20일 가입 가정시)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넣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기존 국내 주식형펀드를 환매할 필요 없이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갱신만 하면 된다. 만약 기존 펀드를 환매하면 괜히 환매수수료 등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환매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계약 연장 이후 투자금액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챙겨볼 만하다.

연금, 장기주택마련 등 절세펀드들과도 한번 비교하며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발표된 세제혜택 펀드들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회사채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국공채보다 위험이 더 크지만 고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는 채권형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채권형도 소득공제 가능)는 1년 내 해지시 8%, 5년 내 해지시 4%의 가산세가 붙는 등 벌금이 많고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85㎡)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이 매달 30만원씩 가입시 3년간 소득공제 총액은 얼마나 될까. 한계세율은 연별로 17.6%, 16.5%, 16.5%이고 회사채펀드는 연 수익률 8%로 가정하자.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3년 주식형 적립식은 21만6000원, 회사채펀드 43만2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72만7000원, 개인연금펀드 151만8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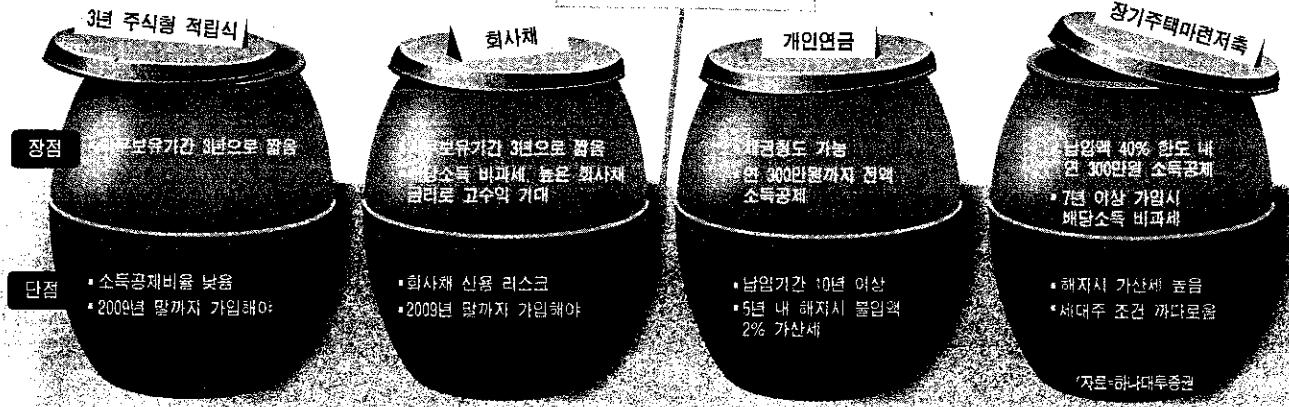
전문가들이 이번 세제혜택 방안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펀드 전문가들은 이번엔 새로 혜택이 부과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투자를 권하고 있다.

임세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부 대책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회사채펀드는 거치식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적립식 주식형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

주요 비과세 펀드 비교



★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3년 성적은

한국투자삼성그룹 49%

Tops엄마사랑어린이 41%

해 볼 수 있다.

기존 적립식 투자금을 좀 더 늘리는 방법과 이전 투자금이 환매수수료가 없는 자금이라면 일단 환매 후 CMA계좌에 넣어두고 세제혜택이 가능한 새 계좌를 만들어 월 자동이체를 하거나 분할 매수 등을 할 수 있다.

김혁곤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입 기간이 1~2년 정도 되는 고객은 아직까지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적립식 투자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가입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특정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200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어 증시 반등 가능성과 세제혜택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물론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장기 자금일 때만 투자하는 것은 기본이다.

박준형 기자

현재까지 국내 주식형펀드들의 3년 성적표는 어떨까.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집계한 결과 21일 현재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이 49%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던 미래에셋대스코버리지주식형은 최근 보유 종목들 급락으로 44.38%까지 수익률이 내려갔다.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41.08%), Tops Value주식(40.09%), KTB마켓스타주식(38.05%) 등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프레스티지고배당주식1(-16.39%), 유라Growth&Income(-12.14%) 등은 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주식형펀드 투자자 올해 58조 날렸는데 운용·판매 수수료 매일 챙기고

국내외 대형 펀드들이 연초 이후 1조원가량 평가손실을 보고 있지만 자산운용사, 판매사들은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형 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이익을 보는 이유는 보수 구조가 펀드 순자산에서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이 감소하면 보수도 줄긴 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펀드보수는 운용사들 수익인 운용보수와 판매사들이 판매 대가로 받는 판매보수, 관리비용인 사무관리보수, 수탁보수 등으로 구성됐다.

운용보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보통 국내 주식형은 2.5% 선, 해외는 3% 선을 받고, 판매보수는 5% 이내로 받게 돼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22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주식1(C-A)이 1조492억원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3개 분기 동안 누적으로 운용수익 118억원을 챙겼다. 운용수익과 판매보수 등을 모두 합한 총보수 수익은 48

연초 이후 평가 손실 큰 펀드와 수익

(단위=%·억원)

유형	펀드	수익률		연초 이후 평가손실	3개 분기 누적 수익	3개 분기 누적 손실
		1개월	연초 후			
해외	봉주르차이나주식 2종류A	-24.39	-51.49	25.884	-	-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1	-20.65	-44.51	20.130	292	703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 1종류A	-23.57	-55.56	26.668	283	516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E	-20.82	-44.82	17.533	242	717
국내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주식 1(C-A)	-18.74	-36.39	10.492	118	484
	미래에셋다스캐버리주식형 9CLASS-A	-16.24	-35.56	10.166	159	31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2Class A	-17.37	-36.35	9.988	125	430
해외 자산 매분	국내주식형 유형평균(대상: 684개)	-16.40	-35.54	264.580		
	미래에셋인사이트프론티어주식형 1Class-A	-20.69	-45.19	20.641.00	380	652
	해외주식형 유형평균(대상: 773개)	-22.47	-48.85	325.269		

※ 22일 기준 순자산 100억원 이상, 연초 이후 유형별 순자산 손실 큰 펀드 순. 3개 분기 수익은 최근 분기 3개 운용 보고서상 수치. 인사이트 펀드 운용수익과 총 보수액은 해당 시리즈 클래스 전체 합. 자료=제로인, 각 펀드 운용보고서

4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1조 원 넘는 손실을 보는 동안에도 이들은 500억원 가까운 이익을 남긴 셈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서도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은 올해 들어 2조6666억원이나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 펀드의 1~9월 운용수익과 총 보수수익은 각각 283억원, 516억원을 기록했다.

슈로더브릭스펀드의 A-1클래스와 E클래스는 평가손실액이 각각 2조130억원, 1조7533억원에 이르지만 슈로더운용은 이 두 펀드에서만 1~9월에 534억원을 벌어들였다.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전체 국내 주식형 평가 손실액은 26조 4590억원을 기록 중이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32조5269억원이나 된다.

운용사가 판매사 동의를 얻어 약관변경을 통해 총보수를 낮출 수는 있지만 판매사에 대해 '올' 처지인 운용사가 함부로 시행하기는 힘들다.

모 증권사 펀드 연구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사들이 보수를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장기투자 펀드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수를 낮추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공포에 질린 펀드런 막을것”

유동성 지원 증권사 환영... 외국인 매도는 우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카드는 한 마디로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 주식형펀드의 대량환매(펀드런) 우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투자자의 매도에 대응, 시장의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신규자금 유입보다 환매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환매에 대비해 주식을 팔아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시장 수급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안에 증권사들이 포함된 것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과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여파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정부가 실행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은 한국은행이 증권금융으로 하여금 운용사 및 증권사로부터 동안채나 국채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

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자산을 팔아도 제때 제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기에 사전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서 그동안 시장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동성이 좀 더 풀리면 여유가 생겨 시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이성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며 “펀드런이 일어날 경우 시장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시장 지지를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금이 필요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부차별적으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매도물량을 떠안을 수 있는 유동성을 지원해 주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ity@fnnews.com] 김태경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29면

“펀드 보수·수수료 내려라”

원금 까먹고있는데 금융회사는 1조3000억 이상 챙겨

펀드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은 꼬박꼬박 보수와 수수료를 챙기면서 큰 돈을 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내부에선 “투자자를 오도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펀드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인하에 나선 곳은 없는 실정이다.

23일 한국펀드평가와 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의 손실금액은 55조847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주식형펀드가 26조8595억원, 해외 주식형펀드가 28조9939억원이다.

반면 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보수로 큰 수익을 챙겼다. 올 상반기 은행들은 7300억원을 벌었고, 증권사는 1분기(3~6월)에 2496억원을 거둬들였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 1분기에 운용보수로 3848억원을 벌었다.

펀드비용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로 나뉜다. 보수는 판매사와 운용사들이 가입 기간에 지속적으로 떼는

돈이고 수수료는 가입 또는 환매시 한 번만 받는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수수료로 투자금액의 0.99~1.01%, 보수로 2.07%를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펀드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은 형편없는 서비스와 정교하지 못한 운용능력에 비해 턱없이 높은 보수로 펀드 구매자들을 두 번 죽인다”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와 보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 간접적으로 업계에 펀드 수수료 및 보수를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판매보수를 판매수수료로 전환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불완전 판매 여부를 떠나 그동안 판매사와 운용사들이 펀드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솔선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펀드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wkim@hankyung.com

□ 기업 펀더멘털 IMF때와 비교해보니

실적 좋은데도 PBR는 비슷

<주가순자산비율>

아이슬란드를 필두로 파키스탄과 벨로루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국내에서도 IMF 당림이 되살아나고 있다.

1998년 당시 구제금융 당사자였던 한국 증시는 훨씬 더 탄탄해진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대비 주가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3일 기준 0.68배를 기록해 외환위기로 IMF 관리에 들어갔던 98년 당시 저점인 0.6~0.8배 구간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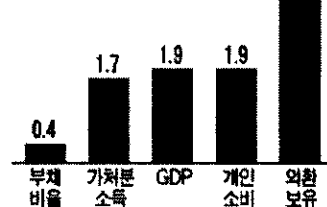
PBR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재무상황에 비해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PBR가 1배에 못 미치면 주가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돼 있음을 뜻한다.

외환위기 당시 코스피의 PBR는 1998년 6월 0.62배를 최저점으로 찍은 뒤 약 5개월 횡보하다 그해 10월에야 0.83배로 올랐다. 코스피는 당시 300선이 최저점이었다. 코스피 PBR는 SK시태와 카드시태 때 0.8배 수준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7.5% 급락

1997년 대비 2007년
주요 경제지표

(단위=배)
*자료=대우증권



해 월간 기준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인 97년 10월(-27%)보다 더 큰 폭이다.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 기록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악재라는 점에서 아시아 외환위기보다 파괴력이 클 수도 있겠지만 당시 한국은 상위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부도나고, 26개 일반은행 중 10개만 생존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이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자본 총계에 영향

을 주면서 부채 축소도 불가피하겠으나 이익 하향 조정이 있더라도 전체 수익구조에서 적자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 관심은 반등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쏠리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약세장은 94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43개월 동안 75% 이상 주가가 조정을 받고서야 마무리됐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강세장과 약세장은 대칭을 이루는 편인데 2003년부터 경기와 무관하게 강세장이 55개월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에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도 낙폭이 가팔라 저점은 먼저 던고 횡보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밝혔다.

강현철 팀장은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기 순환이 빨라졌기 때문에 외환위기 시기와 비교해 반등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급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코스피 1100선 미만에서 매도 공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남미투자펀드 아르헨티나 비중 낮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남미펀드들의 아르헨티나 편입 비중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2개 남미펀드의 전체 자산 가운데 아르헨티나 주식을 편입한 평균 비중은 0.4%에 그쳤다. '미래에셋라틴아메리카중대주주식'과 '미래에셋랩스라틴인덱스주식' '산온삼바라틴아메리카주식'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 'ING라틴아메리카주

식' 등 5개 펀드는 아르헨티나 투자 비중이 전혀 없었다. 슈로더와 신한 BNP 우리CS NH-CA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도 아르헨티나 투자 비중이 1%에 못 미쳤다.

반면 '하나UBS라틴아메리카주식'은 전체 자산에서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2%로 국내 출시된 남미펀드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지난 22일 기준 이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대로 다른 남미펀드 가운데 가장 선방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해외펀드 10일째 유출...이달만 4011억 환매

증시 하락때마다 유입 늘던 국내 주식형도 '멈칫'

해외펀드에서 10일째 자금이 빠져나가며 해외펀드 환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펀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23일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외펀드에선 278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10일 연속 자금이 유출된 것이다.

특히 16일 이후 자금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해외펀드에서 유출된 자금은 4011억원으로 전달의 620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이달 들어 자금 유입세가 멈췄다. 지난 21일 기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선 167억원이 빠져나가며 이달 들어 국내 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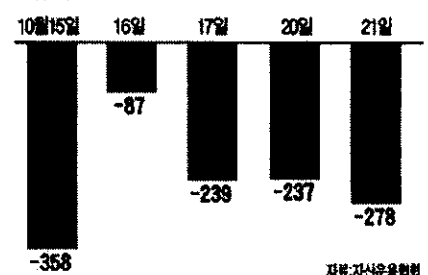
펀드에서 유출된 자금은 2112억원을 기록, 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지난달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금이 들어와 국내 주식형펀드로 총 2502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세에 일부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에 나서고 있고, 적립식 펀드도 자금 이체를 중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쓰라린 마음으로 손실난 펀드를 환매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지점 직원들도 이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주식형펀드의 주식가치인 순자산도 크

해외주식형펀드 자금유출 추이
(단위:억원)



자료:자산운용협회

게 줄어들었다. 88조9287억원을 기록한 지난 21일 이후 코스피지수가 12% 이상 빠진 데다 펀드 투자비중이 높은 중국(홍콩H증시) 브라질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이달 8일 100조원이 무너진 뒤 17일 9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펀드 환매의 법칙

-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을
- 절세형보다는 일반형을
- 국내형보다는 이머징을

'차라리 지금이라도 환매를 하는 게 나을까?'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강세장에서는 30% 정도 손실이 나도 참아내던 투자자들이 약세장이 이어지면 그 절반인 15% 정도의 손실만 나도 환매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 그러나 환매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기본적인 환매 원칙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펀드의 경우 환매를 신청한다고 바로 현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신청 이후 보통 4영업일이 소요되고 해외펀드의 경우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린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을, 절세형보다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 환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김휘곤 삼성증권 펀드리서치 연구위원은 "적립식은 계약기간 이전에 환매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장기투자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던 장기미련저축펀드나 개인연금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도 기존에 발생한 세금혜택 부분을 모두 환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멀리 보면 절세금액의 장기 복리투자 기회까지 상실하는 셈이다.

기본 원칙을 알고 있다면 상황별 환매 전략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첫째,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뒤 주가가 하락해 수익이 줄고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펀드수익률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까지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투자기간보다 짧게 복

표수익률에 도달했다면 이익 부분만을 실현시켜 수익으로 만들고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다.

만약 펀드가 시장지수보다 또는 유사 펀드보다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 환매하는 방법이 낫다. 손실은 보고 있지만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당분간 하락 장세를 가정한다면 분할 매도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구 국토농신권증권 자산관리팀 과장은 "매도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므로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도기간을 길게, 금액은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더 이상 손실을 견디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본인의 생각보다 원금회복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져 돈을 계속 부자해 소위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은 돈보다도 시간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다면 종목을 나눠서 분산투자하고 종목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다면 종목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주식, 채권, 현금 등의 비중을 먼저 결정한 뒤 주식형펀드 중에서는 일반성장형, 가치형, 중대형, 테마형, 세제혜택형 등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동성이 높았던 증시 상황에서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이머징 국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발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국내 펀드의 투자 비중을 늘려 보자.

국내 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를 환매해 주가 하락시 수익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소아 기자

손실난 해외펀드도 세금 물어야

환차익·배당수익 모두 과세

환율 급변동 등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해외펀드에서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을 제외한 환율 변동·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로인에 따르면 21일 현재 인사이트 펀드 기준가는 527.42원이다. 이에 비해 과세 기준을 보여주는 과표기준가는 1151.97원으로 설정 당시(1000원)에 비해 높아졌다. 1억원을 넣고 지금까지 기다린 투자자라면 과세 대상 금액 1519만원에 세율(15.4%)을 계산해 233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환해지를 선택하지 않은 일본 펀드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일본 펀드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환해지 여부에 따라 1년 수익률이 크게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펀드도 있다. 수익률 차이가 환율에서 발생하고 있어 과

해외 펀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차이 예 (단위=원)

펀드	기준가	과표기준가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 1Class-Ce	510.28	1125.15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 1Class-A	513.66	1130.49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 1Class-C	508.80	1122.86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 1Class-C 2	657.83	1164.21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 1Class-F	585.14	1090.35
삼성글로벌위험N재편주식종류형자 1_A	473.63	1038.93
삼성글로벌위험N재편주식종류형자 1_C	466.42	1026.72
삼성글로벌위험N재편주식종류형자 2_A	783.10	1410.93
삼성글로벌위험N재편주식종류형자 2_C	771.41	1393.32

* 21일 기준, 자료=제로인

세대상이다.

동일 상품에 환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투자자가 환해지를 선택했다. 그만큼 환율출 선택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에서는 "환차익 등이 없었으면 현재 펀드 손실폭이 더 컸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 답라"는 입장이다.

정욱 기자

ETF 목표수익률 높아져

하이투자증권 年 29%제시

주식시장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목표 수익률이 연 30%에 육박하는 주식 연계 파생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치솟는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대수익률이 1년 전에 비해 연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이 이날 선보인 조기상환형 주식연계펀드(ELF)인 '하이스텝 루스타55 파생상품투자신탁 5호'는 연 29.2% 수익을 추구한다. 이 상품은 LG와 LG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으로 펀드가입 후 3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 29.2%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까지 가더라도 기초자산 두 종목의 가격이 하나라도 장중가를 포함해 40%를 초과 하락한 적이 없으면 높은 수익을 확정하는 구조다.

우리투자증권이 이번주 판매한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삼성전자와 GS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짜리로 연 25.8%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연 20%대 수익을 주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 30%에 육박하는 현재 ELS나 ELF의 목표 수익률은 1년 전에 비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하이투자증권이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만기 ELF는 목표 수익률이 13.5%에 불과했다.

조현 기자 u2@hankyung.com

“장기회사채 펀드 1개만 만들라고?”

금융당국 '1社 1상품' 방침에 일부 운용사 불만

금융당국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 회사채펀드를 사실상 각 자산운용사당 1개만 만들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회사채펀드를 만들 기회가 제한된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는 장기 회사채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받아 각 자산운용사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

적 회사당 1개의 약관만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회사당 1개의 펀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허용하면 여러 개의 상품을 남발해 가입자만 분산되고 세제혜택 기간이 끝나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장기회사채펀드의 숫자를 제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회사채

펀드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2,3호 상품의 출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의도가 좋더라도 상품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형펀드는 어떤 채권을 편입할지를 놓고도 여러 성격의 펀드를 만들 수 있고 판매사에 따라 요구하는 유형도 다를 수 있다”며 “상품출시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상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현 기자 twkim@hankyung.com

천덕꾸러기 된 ELS ... '너 때문에 주가 더 떨어진다'

(주가연계증권)

Cover Story 주가 급락해도 안전하다더니 3분의 1이 원금 손실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환매할게요.”

23일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우리투자증권 모 지점에는 환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주식형 펀드 얘기가 아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다. 직원들이 “중도 환매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답장은 패닉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만큼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며 설득했지만 마음을 돌리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전과는 확 달라진 분위기다.

주가 떨어져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각광을 받았던 ELS가 최근에 ‘천덕꾸러기’가 됐다. 한 인터넷 채테크 카페에는 “원금의 60%를 손실보고 중도 환매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곧 “나도 60% 손실보고 있는데 어찌지 못하고 피가 마른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다니 내가 미쳤다” 등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엔 ELS 헤지(위험 회피)를 위한 ‘팔자’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ELS가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상황이다.

◆하루 34개골 원금 손실 발생=NICE채권평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514개의 ELS(공모형 기준)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총 조사 대상(1711개)의 30%에 달한다. ELS 1개에 5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2조5000억원가량이 원금을 까먹게 된 셈이다.

대부분의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발행 당시보다 30~40% 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그런데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 원금을 까먹는 ELS가 속출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기(보통 1~3년)까지 기다려 주가가 발행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면 원금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요즘 증시 상황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6월 1조원에 육박했던 공모형 ELS는 이달 들어(20일 기준) 410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투자자들이 돈을 넣지 않다 보니 발행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중도 환매가 어려운 것도 ELS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다. 주식형 펀드는 보통 3개월 이상만 투자하면 아무 조건 없이 환매할 수 있지만, ELS는 따로 비용을 물어야 한다. 최근 ELS 중도 환매 요구가 폭증하면서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는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돈을 물어주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동양증권증권장지현 연구원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LS 투자 위험도 커졌다”며 “수익률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안전성, 원금 보장 조건, 상품 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급락 주범” 지적도=22일엔 ELS가 ‘지수 급락의 주범’ 혐의를 받았다. 증권사는 ELS 상품을 팔면서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사들이는 식으로 헤지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증시 급락으로 ELS가 원금 보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권사들은 더 이상 헤지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사들인 코스피200지수 선물 등을 팔게 된다. 매물이 쏟아지면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선물 가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식을 사고팔도록 돼 있는 프로그램 매매의 ‘팔자’를 불러온다. 22일

이 딱 그랬다. 이날 원금 보장 범위를 벗어난 ELS가 속출하면서 증권사에서 ELS 관련 선물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장 초반 1500억원 매수 우위를 이어가던 프로그램 매매는 결국 954억원 순매도로 마감했다. 이날 증권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대 규모인 5190억원의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팔았다.

손실 커지며 환매 요구 급증
발행액 월 1조 → 410억으로

헤지 물량 쏟아지면서
“주가 낙폭 키운다” 눈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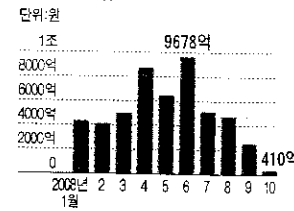
일각에선 증시가 추가 하락하면 ELS 관련 선물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왜더독(선물이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현대증권 문주현 연구원은 그러나 “ELS 헤지 물량은 시장에 단순 충격을 주는 변수일 뿐”이라며 “투자심리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려 기자 neoran@joongang.co.kr

◆ELS=주가연계증권. ELS는 자금의 60~90%를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다. 대개 연 10~20%의 고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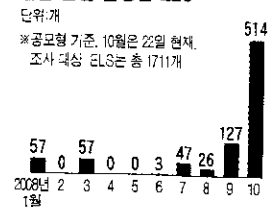
ELS 발행 규모



※공모형 기준, 20일 현재

자료:NICE채권평가·
동양증권증권

원금 손실 발생한 ELS



※공모형 기준, 10월은 22일 현재, 조사 대상 ELS는 총 17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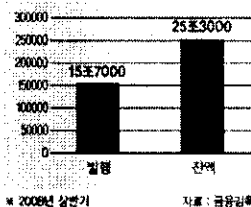
자료:NICE채권평가

폭탄이 된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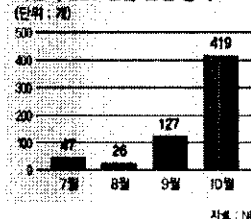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주가연계증권(ELS)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코스피 200지수 하락이 기존 ELS의 헤지 물량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취약한 국내 증시 수급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지금 수준보다 더 하락할 경우 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출회 규모나 영향측면에서는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ELS 발행 및 잔액 현황 (단위: 억원)



하반기 ELS 현금 손실 총액



하락장 헤지물량 쏟아내며 폭락 부추겨 코스피200, 130선 밀들면 추가물량 경계

20일 선물시장에서 증권사들은 1300계약가량 순매도로 사흘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프로그래밍 매물을 부추겼다.

지수급락에 따른 선물매도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대규모의 차익물량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선물시장의 수급을 부담스럽게 하면서 지수가 또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증권사의 ELS를 꼽으며 앞으로 또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전일 코스피200지수가 150선을 밀들자 ELS 헤지포지션 청산으로 추정되는 증권사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출회. 베이시스가 급락하면서 짧은 시간에 차익물량이 집중 쏟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선물 순매도 물량이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으로 단순한 지수하락 베팅으로 보기도 힘들다.

유진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은 "올해 지수형 ELS 발행이 집중된 코스피200지수 210~240에 60~70%의 베리어(원금손실 가능성)를 적용할 경우 130~160에서 헤지포지

션 청산물량이 나올 수 있다"며 "137까지 떨어진 코스피 200이 130선을 밀들 경우 물량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확대해석은 경계하라는 지적이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원은 "금감원의 발표대로 원금손실을 터치지 않고 남아있는 지수형 ELS 물량이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 나올 수 있는 선물매도 물량이나 그에 따른 물량 청산 규모도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비차익매수세가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월 동시만기일 이후 비차익거래에서만 5조원 정도가 시장으로 유입됐다.

신영증권 한주성 연구원은 "시기적으로 지수 급락기에 매력이 높아진 배당 투자 자금이나 연기금의 저가매수 등으로 비차익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지겠지만 비차익매수가 방어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hnews.com | 안상미기자

한국경제

10월 24일 a29면

ELW풋 가격 급등

수익률 600% 잇따라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발행가격보다 6배 이상 높아진 'ELW(주식워런트증권)풋' 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 지난 6~7월 발행된 것으로 발행 당시 인수해 보유한 투자자는 3개월 남짓 만에 600% 이상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ELW풋은 기초자산의 주가가 정해진 날(만기일)에 일정한 가격(행사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에 대한 차액을 전한 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청산하는 파생상품이다.

코스피200지수가 기초자산인 '하나1B8159ELW풋'은 23일 11% 급등한 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9일 발행된 이 ELW의 발행가격은 720원으로 석달 남짓 만에 8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33% 급등하며 5980원으로 마감된 '현대8137ELW풋'도 6월17일 발행 당시 가격은 750원에 불과했다.

이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전날 종가인 6300원을 유지한 '유진8094ELW풋'은 증시 급락으로 실제 거래돼야 할 이론가격은 7141원을 기록, 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통상 500~1300원 사이에서 발행되는 ELW 가격이 7000원대까지 오른 것은 드문 사례다.

유지은 맥쿼리증권 이사는 "이들 ELW는 현 증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만기일까지 가더라도 행사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증시 전망이 어두운 현재로서는 당분간 ELW풋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hu@hankyung.com

개별주식처럼 쉽게 매매 환매수수료·거래세 면제

ETF 급변장서 눈길

<삼정자산펀드>

불안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펀드(ETF)는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워낙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액티브펀드 투자로 마음을 줄이기보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ETF를 적립식처럼 조금씩 사는 투자방법도 널리 퍼지고 있다.

업종지수를 추종하는 섹터 ETF, 주식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스타일 ETF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어서 그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주식형 펀드들과 동일한 컨셉트의 ETF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웬만한 유명 펀드는 ETF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지난 22일 상장된 KB자산운용의 'KStar 5대그룹주 ETF'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대 그룹의 대형 우량주 25종목을 골라 구성된 지수를 추종한다. 다시 말해

이는 시판되는 펀드로 따지면 '미래에셋5대그룹대우주주식' 펀드나 '미래에셋매크로5대그룹주주식' 펀드와 비슷한 컨셉트다.

이런기 KB자산운용 대표는 "KStar5대그룹주ETF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5대 그룹 내 우량종목만 골라 손쉽게 그룹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입증률로도 전기전자 운수 장비 철강금속 등 11개 업종 주식에 대한 분산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주식처럼 쉽고 신속하게 거래되는 데다 팔 때 거래세(0.3%)가 면제되고 수수료는 물론 환매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액투자자나 장기투자자에게 펀드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펀드 대신 이 ETF를 살 수도 있다는 말이다.

ETF가 국내에 2002년 10월 처음 소개된 후 2005년 6개(8000억원)에서 2006년 12개(1조6000억원), 2007년 21개(2조4000억원), 올 10월 기준 36개(3조원)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간편함과 저비용에 기인한다.

◆복합형 행복한 투자(Happy Investment)

사실 이미 올해 초부터 기존 펀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ETF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삼성투신의 KODEX삼성그룹주ETF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펀드 중에서도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이상 삼성그룹), 우리LG&GS플러스주식(LG와 GS그룹),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SK그룹), 현대하이로영웅시대주식(현대그룹) 등 대기업그룹 대표주 펀드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ETF의 출현에 투자자들이 반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섹터 및 스타일 ETF처럼 정형화된 ETF와 달리 최근엔 몇 개 우량 종목만을 골라 투자하는 ETF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Nifty Fifty(초우량50종목)'처럼 장기투자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달 상장된 삼성투신운용의 KODEX15 ETF, 한국투신운용의 한국 KINDEX F15 ETF는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구성된 ETF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개별 종목 선물의 거래가 가능한 15개 종목(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KT 등)만을 바스켓에 담은 지수를 추종한다. 배재규 삼성투신 인덱스운용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만큼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면서 "시장 전체를 혹은 우량 종목을 몇 개 모아 사는 개념인 ETF를 통해 개별 종목을 사 놓고 마음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로 '행복한 투자'

"라고 말했다.

◆ '핵심(Core)+주변(Satellite)' 전략 더 다
양해질 듯

배 본부장의 말처럼 ETF의 기본은 일단 '시장 전체를 산다'는 개념이다.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

면 주가는 언젠가 오를 것이므로 시장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하락기에는 개별 종목 투자보다 ETF가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조건 시장지수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지루할 수 있

다.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자들이 ETF의 '핵심+주변 전략'을 활용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핵심'으로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지수인 KOSPI200 관련 ETF(KODEX200이나 TIGER200 등)를 사 놓고, '주변'으로는 섹터·스타일 혹은 5대그룹ETF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ETF의 등장으로 이런 전략이 더 원활하고 다각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됐다.

물론 ETF에 아킬레스건이 있다. 유동성이 적은 ETF는 매도가 힘들 수 있고, 수수료가 너무 싸다 보니 단타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 이런 점은 유의해 ETF 투자를 해야 한다. 김선걸 기자

스타일·해외·기타 ETF 현황

구분	종목	상장일	운용사	추적지수	구성종목	순자산총액(억원)
스타일 지수 (8)	KODEX 중대형가치	2007년 7월 31일	삼성투신	MF 중대형가치	117	47
	KODEX 중형가치	2007년 7월 31일		MF 중형가치	67	26
	KODEX 중대형성장	2007년 7월 31일		MF 중대형성장	123	42
	TIGER 순수가치	2007년 7월 31일		MF 순수가치	202	70
	TIGER 중형가치	2007년 7월 31일	미래에셋	MF 중형가치	67	61
	KOSEF 대형가치	2007년 7월 31일		MF 대형가치	58	45
	KOSEF 중형순수가치	2007년 7월 31일		MF 중형순수가치	38	41
	TREX 중소형가치	2007년 7월 31일		MF 중소형가치	292	76
해외 지수 (5)	KODEX China H	2007년 10월 10일	삼성투신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42	1,291
	KODEX Japan	2008년 2월 20일	삼성투신	TOPIX 100	100	138
	KODEX Brazil	2008년 7월 26일	삼성투신	Dow Jones Brazil Titans 20 ADR Index	20	46
	TIGER 라틴	2008년 8월 27일	미래에셋	The Bank of New York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	35	145
	TIGER 브릭스	2008년 8월 27일	미래에셋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RIC Select ADR Index	90	230
기타 (6)	KODEX 삼성그룹	2008년 5월 21일	삼성투신	삼성그룹지수	12	1,167
	KOSEF 블루칩	2008년 7월 29일	우리CS	MF 블루칩	40	97
	KOSEF 고배당	2008년 7월 29일		MF 헬스 고배당 20	20	85
	KODEX 15	2008년 9월 25일	삼성투신	MF F15 PW	15	137
	KINDEX F15	2008년 9월 25일	한국투신	MF F15 VW	15	106
	KStar 5대그룹주	2008년 10월 22일	KB운용	MF 5대그룹주 지수	25	-

* 2008년 10월 17일 기준, 총 27개 지수를 대상으로 36개 ETF 종목 상장(신규 상장종목 포함).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자산운용사에 자금 지원

금융위 “韓銀서 국공채 사들일것”…李 한은총재 “내년 3%대 성장”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한은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환매와 증권 매매를 통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매매 대상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통채, 토지개발채권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임승태 처장은 “한은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채권을 직접 사들이지는 않고 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쳐 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RP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한은의 직접 거래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은행을 한 번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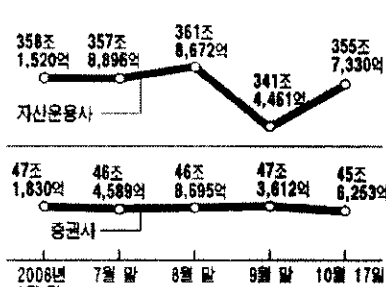
구체적인 매입 규모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운용사의 기관투자자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평소 전체 자산 대비 5%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주기 위해서다. 은행으로 치면 지급준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동성 비율이 8~10%로 늘었다. 예상치 못한 대량 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게다가 유동성 비율은 완충장치 역할도 못하고 있다. 운용사들이 8~10% 비율을 꾸준히 맞추기 위해 이를 건드리지 않고 환매 요구에 대해 자산 매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처장은 “기관들은 환매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자산을 팔아버리면서 기관투자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증권·자산운용사 유동성 동향(단위:원)



*자료:한국은행

“간접적인 공개시장 조작으로 역할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간접적으로 운용사가 보유한 국공채 등을 사들이게 되면 운용사들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들이 8~10% 수준인 유동성 비율을 다시 5%대로 낮추고 줄인 유동성을 자산운용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

석해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엇그제도 (은행채) 일부가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이 일부 매입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4%는 어렵지만 3%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공식적으로 ‘3%대’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지금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900원까지 갔는데 그것은 지금과 정반대로 이례적으로 내려갔던 수준이므로 국제금융시장이 정상화되더라도 900원이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경·박유민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01면

한은총재, 은행채 일부 매입 시사

금융위 “10조 정도면 시장 안정”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매입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25조원은 4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전체 은행채 규모인데 이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

다”고 말해 은행채 ‘일부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 매입해줘야 (자금시장이) 돌아간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A6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조원 규모의 은행채 가운데 10조원 정도를 한은이 매입해주면 자금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

다고 본다”며 “나머지 15조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매입하거나 은행들이 예금 등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10조원 규모의 은행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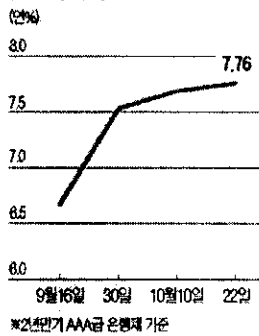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면 은행채의 금리가 내려가고, 연쇄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세가 차단돼 급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가계 부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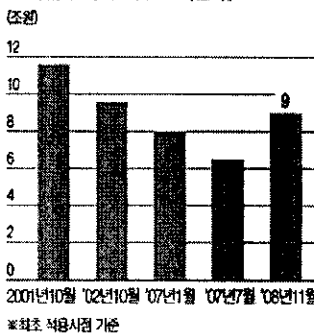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확대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로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용석/경제팀 기자 hohoboy@hankyung.com

은행채 금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



한은, 왜 RP방식 은행채 매입 검토하나

자금시장 가뭄에 '물꼬' 기대 CD·주택대출금리 인하 효과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환매 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은행채 매입이 자금시장 경색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은행채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연 6.7% 미만이던 2년만기 은행채 금리(AAA급 기준)는 현재 연 7.8%에 육박하고 있다. '리먼 사태'로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은행채 발행은 물론 기존 은행채를 차환 발행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은행채 시장의 한파가 은행 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저축은행이나 가계대출 금리 등으로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되자 자금조달을 위해 연 7%대 예금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에 예금금리도 오르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마저 덩달아 상승했다. CD금리의 경우 최근 연 6%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고 담보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선 은행채 매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부도 위험이 없는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해 왔을 뿐 신용 위험을 안고 있는 은행채를 매입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 은행채를 대상으로 RP 매매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시장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은행채를 발행 은행으로부터 '직매입' 하는 방안은 한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직매입 방식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은행채 직매입은 시중 은행에 한은의 돈이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자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이 23일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2조5000억원 증액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내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우려로 이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율 등의 문제로 여전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유승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용어풀이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s)=은행이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한국은행에 매각한 뒤 약정기간이 지나면 되사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RP 매매를 활용하고 있다. 부도 위험이 없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은행채를 RP 매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美·EU선 중앙銀까지 나서 기업 지원 하는데

韓, 지급보증 등 '뒷북' 신뢰 상실

지난달 16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놔왔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이 가장 먼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조치를 발표하자 뒤를 이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잇단 위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 등에 있어서는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각종 금융위기 극복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발빠른 주요국들의 위기 대응 지금까지 나온 선진국들의 금융위기 대응책의 핵심은 '선제적 방어'로 요약된다. 초기에는 미적거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일단 발을 들여 놓고 난 뒤에는 전격적인 조치들을 쏟아냈다. 조기에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워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은행 간 채무보증 △예금 보장 한도 확대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투입 △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 인하 △중시 안정대책 등 각

국가별 위기대처 방안 시행 현황

	미국	영국	독일	유로존	일본	중국	한국
은행간 채무보증	○	○	○	○	△	△	○
은행예금 지급보증	○	○	○	○	△	○	×
은행에 직접 자본 투입	○	○	○	○	△	○	×
유동성 공급 확대	○	○	○	○	○	△	○
금리인하	○	○	○	○	×	○	○
중시 및 한을 안정 개입	○	○	×	×	○	△	△

※ △는 검토중

종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은행 간 채무보증의 경우 지난달 말 아일랜드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각국으로 확산됐다. 영국이 지난 8일 2500억파운드를 은행 채무 지급보증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도 13일 각각 4000억 유로, 3200억 유로, 1000억 유로의 지급보증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도 14일 은행들의 선순위 무담보채권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방안을 내놔왔다. 각국은 은행예금 보장 한도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보장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높인 데 이어 EU도 2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보장 한도를 높였다. 이 밖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FRB)는 8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7개 중앙은행과 정책공조를 통해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대책도 내놔왔다. 여기에는 중국 중앙은행도 동참했다. 또 중시 안정을 위해 미국이 지난달 19일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영국도 같은 달 18일 내년 1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놔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각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각종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타이밍'이 늘 한발씩 늦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은행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이달 초부터 모든 은행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영국이 이런 조치를 내렸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도 이에 동참했다. 각국의 이런 조치에 국내 은행들은 "외화 차입에 여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19일야에 '은행 외화 차입 지급보증' 방침을 확정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호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는 7~8일 0.25~0.5%포인트씩 금리를 낮췄다.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9일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금융위기 초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발 늦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실시간으로 받는 단계"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명 기자 chuniro@hankyung.com

‘양치기 소년’ 된 애널리스트들 “부끄럽다... 미안하다...”

요즘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코스피지수가 이들이 저점이라고 제시했던 모든 지수대를 깨고 1000선마저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주가가 급락한 23일 한 증권사의 현황담당 애널리스트(시니어)의 첫마디는 “한마디로 부끄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준비도 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경고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고백이다.

그는 또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이 과연 장기 투자수단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라고 고백했다. 그동안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 높았다고 주장해온 그였다. 하지만 이 말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에 대한 회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애널리

스트는 “현재 주가는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1980년대 후반 지수 500에서 1000을 오가던 박스권 상단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20년간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시장은 펀더멘털(내재가치)을 뒤로한 채 주가를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데 대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의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예상하지 못했다”고까지 털어놨다. 향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저점을 논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국시장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애널리스트의 숙명”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버핏 말대로라면 바닥인데”

삼성증권 몇가지 증거 제시... 투자자는 냉담

주가가 바닥에 다가섰으므로 공포에 질릴 때 주식을 사는 워런 버핏의 판단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증권은 23일 발표한 증시분석 보고서에서 ‘경험과 직관에 비추보면 주가가 바닥에 다가서는 정황적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종합일간지는 경제지와 달리 주식 관련 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불구하고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주가 폭락 기사가 자주 실리는 점이 끝없이 추락해온 증시의 파지노선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증시 활황기 때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몰렸던 투자설명회가 썰렁해진 것도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오 파트장은 “강세장의 투자설명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무너진 최근 상황에서는 투자설명회에 나가는 강사는 죄인의 심정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투자설명회에 투자자가 없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며 불만을 토로하고 대안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투자자들이 일발의 희망마저 포기한 채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생각으로 설명회에 불참하는 지금이 바

닥”이라고 분석했다. 오 파트장은 이런 현상이 최근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바닥을 친 증거로 꼽았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과 적정주가를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증시가 바닥에 도달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이 하루아침에 적정주가를 50% 이상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하향조정 행태를 보이고 빅 사이클이 끝났다는 등의 뒷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증시 하락 사이클의 막판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증권사 영업직원과 투자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점도 하락장의 끝을 알리는 정후로 제시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바닥 언급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애널리스트들의 뒷북치는 보고서와 주가하향 조정 등에 대해 불신을 쌓아온 터라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바닥이 아니란 소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주가지수 1400부터 바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바닥이라면서 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겠느냐. 개인들이 빠져나갈까봐 겁나서 하는 소리밖에 안들린다”고 반박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손익계산서 안보고 대차대조표 봐요”

펀드매니저들, 기업 이익보다 현금흐름 주목

펀드매니저들이 기업 실적이 나타나는 ‘손익계산서’ 보다는 현금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차대조표’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각 기업의 현금과 부채의 변동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박건영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이 꼬이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펀드매니저들이 어느 때보다 대차대조표를 중요한 투자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곽중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차대조표를 중요시하는 것은 요즘 시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향후 기업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실제로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도 ‘위기설’이 돌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형편이라서 대차대조표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사 대차대조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가는 단계별로 손익계산서엔 이익 규모가 커지지만, 분양이 안 되면 결국엔 그동안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허문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3분기와 4분기에 건설사들이 눈에 띄게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설명했다. 장경명 기자 longrun@hankyung.com

‘2년에 50%’ 高수익 채권 등장

KCC 해외 교환사채·발행가 70% 수준서 거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면서 KCC가 발행한 해외채권은 2년 기대수익률이 50%를 웃도는 등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국내 우량기업들의 해외 채권을 사와 공모로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KCC가 지난해 11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해외 교환사채(EB)가 해외 장외시장에서 발행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년 후인 2010년 10월말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EB는 조기상환시 5% 내외의 금리를 주고 있어 KCC가 2년 후 망하지 않는다면 50%(연 25%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발행가를 100으로 가정하면 2년 후 105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현재 70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KCC는 지난해 10월 말 자사주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주식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EB를 3종류로 나눠 발행했다. 당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KCC EB에 매긴 신용등급은 ‘Baa2’ (안정적)라는 점을

KCC 교환사채(EB) 개요

발행일	2007년 10월30일
발행규모	11억달러
발행지역	미국 유럽 등
사채발행 방법	사모
만기	5년
조기상환	3년 후부터 가능
조기상환시 금리	A형 4.43% B형 8.05% C형 5.83%
현재 거래가격대	원금의 70% 수준

자료: 금감원, 블룸버그

감안하면 최근 가격 급락은 상식 밖이란 지적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최근 이 채권의 신용리스크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 공모로 판매한 신용파생상품(CLN)의 금리가 연 9% 수준이었다.

KCC 관계자는 “회사의 리스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터진 미국과 유럽 투자자에 주로 팔았는데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헤지펀드 등에서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사채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이닉스가 지난해 12월 5억 8340만달러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경우도 발행가의 70% 수

준에 매도 호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선이 작년 11월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서구 가치투자자문 대표는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상식 밖의 수준에서 우량기업들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선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이와 같은 투자기회를 상품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채권은 발행 후 1년 동안 국내 투자자의 매입이 금지되는데 11월 초 KCC부터 그 기간이 풀린다”며 “이런 채권들은 보통 100만달러 단위로 거래돼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되사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로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모 채권을 공모로 팔 경우에는 발행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권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MSCI 페르난데스 회장 내달 12일 방한

선진지수 편입 최종조율 기대

【베이징(중국)=신현상기자】 한국
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편입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이
오는 11월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MSCI가 오는 12월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자
본시장 설명회(IR)에서 기자들과
만나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증시
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11월 한국을 방문, 투
자자들과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다"

고 밝혔다.

황 회장은 "FTSE가 한국 증시를
선진지수로 편입했기 때문에 MSCI
도 한국을 선진지수로 편입할 가능
성이 높다"며 "금융위원회와 증권
업계가 공동으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 이어 "연말까지 MSCI 조사가 끝
나면 내년 9월까지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MSCI가 이르면 오는
12월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
어 오는 11월 방문이 선진지수 편입
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shs@innews.com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24일 030면

신흥시장 위기 증권사 당혹

굿모닝신한 벨로루시 진출 보류... 투자 경고등

글로벌 위기가 신흥시장의 부도위
기로 전이되면서 이들 국가에 진출
했거나 진출을 시도하는 국내 증권
사들에게도 적색등이 켜졌다.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에 이어
23일 동유럽의 소국 벨로루시도 국
제통화기금(IMF)에 20억달러 규모
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2001년 국가부도를 경험한 아르헨티
나도 7년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국내 증권사
들 중 이들 국가에 직접 투자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그
간 주로 진출한 지역은 베트남 등 동
남아가 많고 중앙아시아도 우크라이
나는 실적이 없어 문제가 없는 상태
다.

벨로루시의 경우 굿모닝신한증권
이 진출을 시도해왔으나 제동이 걸
렸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 3월 국

내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벨로루시
최대 국영은행 벨로루시뱅크와 전략
적 제휴를 한 뒤 투자를 추진해왔다.
벨로루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 투자금융사 공동 설립,
물류센터와 수력발전소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물론 벨로루시
뱅크의 지분 일부도 인수한다는 방
침 아래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
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다행히
시장상황을 조사하는 단계라 투자에
노출된 금액이 전혀 없다"며 "벨로
루시는 투자매력이 큰 시장인 만큼
글로벌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여
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투자를 고
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벨로루시는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
이나에 인접한 인구 1000만명의 동
유럽국가로 산림, 칼륨, 압연, 갈탄,

석유, 가스, 토탄 등 천연자원이 풍
부하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파이프를 비롯해 도로 철도 등
이 발달된 지역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증권사에 투자은행(IB)
붐이 일면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신
흥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는 신흥국들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어 위험부담
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주로 진출
해온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2-3년간
새 수익원 확보를 위해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뿐 아니라 카자
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전역에서 부동산사업·자원
개발·해지펀드 운용 등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해왔다.

김민서 기자 river@

글로벌 중시패닉

증시 패닉과 자사 주가하락이 겹치면서 증권사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들의 위기탈출 해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오너들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거나 주식을 매수하며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전문경영인들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e메일 형식을 빌려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구 부회장

현정은 회장

최현만 부회장

증권사 수장들 '외풍차단' 나섰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부회장은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까지 동시에 알렸다.

지난 13일 회사 주식 20만주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힌 김 부회장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 20~21일 이틀 동안 1만3000주를 매입했다.

김 부회장의 매입 결정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자체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임여자금으로 다른 회사에 풀돈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리먼브러더스 관련 금융상품 문제 등이 회사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시사했다.

한국금융지주 윤진식 회장과 한국증권 유상호 사장, 한국투자증권 정찬형 사장, 한국금융지주 김주원 대표 등 다른 임원진도 김 부회장과 함께 주식매입에 나섰다.

현대증권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경수 사장이 시차를 두고 행동에 들어갔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한국금융 김남구 부회장

"문제 없다" 자사주 매입

현대 현정은 회장

'이사회 입성' 경영일선에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재무상황 건전" 직원독려

현 회장은 현대증권 이사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오너'가 직접 경영을 책임져 흔들리는 조직과 문화를 다잡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최 사장은 외국계 증권사의 현대증권에 대한 분석을 반박하며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

장했다. 최 사장은 "꾸준한 리스크관리 등으로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기연계증권(CLS) 등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 회사 재무상황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구조가 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위탁영업에 편중됐기 때문에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자산관리, 투자은행(IB), 자기자본투자(PD)부문의 영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부회장도 외국계 증권사의 회사에 대한 혹평 전후에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의 리스크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9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최 부회장은 "(회사) 수익구조가 다변화돼 있고 자산관리부문 역시 로열티 있는 고객층이 두껍다"며 "올해 주당순이익이 5000원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주가하락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배성민 기자 baesm@

중소형증권사 '속보이는' 한계기업 마케팅

재무 열악한 기업 자금조달 주선... 수수료 챙기기 급급

유진·골든브릿지·한양·메리츠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재무상태가 불안
정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업무를 주선
하는 등 틈새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평판 등을 이
유로 이들을 기피하는 것과 정반대
행보다. 자금조달 결과와 상관없이
당장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3분기 ECM 리크테이블에 파
르면 재무상황이 열악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
B) 발행 등의 주관업무를 중소형 증
권사들이 거의 독식해온 것으로 나
타났다.

3년 연속 영업적자거나 자본잠식

에 빠지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한
계기업의 경우 공모형태로 자금조
달을 추진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실제 중소형 증권사가 주관업무를
맡았던 이들 한계기업 대부분이 예
정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졌다.

유진투자증권은 엠트론스토리지테
크놀로지 에스피코프 등의 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맡았으나 전부 미발행으
로 끝났다. 이들 기업은 모두 3년 연
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김종학
프로덕션 쓰리소프트처럼 일부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도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까지 유상증자·CB·BW 주관부

문 최대 미발행(발행실패) 주관사라
는 불명예를 안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네오솔라
비엔디 오라에너지 3곳의 유상증자
를 맡았다. 비엔디와 오라에너지는
3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며 네오솔
라의 경우 회사 유보자금 유출로 재
무상태가 열악하다. 이들 모두 예정
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했다.

메리츠증권은 역시 '한계기업'으
로 분류될 수 있는 그랜드포트와 엠
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2곳의 CB
발행을 주관했으나 모두 중도철회로
끝나버렸다.

이밖에 한양증권이 PW제네텍스의
CB발행을 2번이나 주관했으나 모두
일부 발행에 그쳤으며 동부증권이 유

3분기 증권사별 한계기업 딜 주관 현황

(단위:백만원)

주관사	구분	발행회사	미발행규모
골든브릿지증권	유상증자	네오솔라, 비엔디, 오라에너지	33,101
메리츠증권	CB	그랜드포트,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57,554
유진투자증권	유상증자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김종학프로덕션 쓰리소프트, 에스피코프	72,660
	CB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23,625
	BW	어울림네트웍스	500
동부증권	유상증자	쓰리소프트	17,600
한양증권	CB 2회	PW제네텍스	25,994

*한계기업은 3년 연속적자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을 말함

**메리츠증권이 주관한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발행CB의 원화금액은 당시 기준환율 적용

상증자 주관을 맡은 쓰리소프트 또한
178억원어치 전량이 불발됐다.

반면 대형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체
리스크위원회를 두고 '한계기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무리하게 한
계기업의 자금조달을 추진하다 실패
할 경우 쌓아올린 평판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라도 최대한 주관대상에서 배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조달
결과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한계기업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공략하는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
자는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장래가
불확실한 회사의 자금조달에 무작정
나서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
다"고 말했다.

민경문 기자 kmin@

머니투데이

장기투자, 유행 아닌 문화로



신현규

증권부
rfrost@mk.co.kr

작년 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은 적립식 투자란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시기엔 사실 적립식 투자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려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2007년까지 적립식펀드에 돈을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 사람들은 '내 펀드 팬찮나' 돌아보게 됩니다. 객장에 가보니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펀드를 환에했다는 독자도 계셨습니다.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과연 우리에게 적립식 투자문화가 존재하긴 했는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예찬했는지 모릅니다. 적립식 투자란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빛을

발하는 상품인데 증권사도, 투자자들도 모두 강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몸이 떨릴 만큼 최근 시장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앞날은 장담 못합니다. 지금 증시 불안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불과 1년 전에는 대부분 '상승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예측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앞날을 못 보는 서민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하는 방법은 장기적립식 투자 외에 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립식펀드가 더욱 빛을 발하는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되레 돈을 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펀드를 환매한다면 한 번은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코스피는 언젠가 현재 1000에서 전고점인 2000까지 올라갈 겁니다. 3년 내 올라간다면 투자자는 연평균 26%를 먹게 됩니다. 5년이라면 15%, 10년이라면 7%의 수익이 돌아옵니다. 은행 예금이자에 아직 6% 언저리입니다.

누군가 '투자는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투자는 유행이 아니란 사실 말입니다. 적립식 투자 역시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 기원합니다.

열린마당

금융인에게 윤리교육 시켜라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이자와 배당,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수익의 가치(워런 버핏이 말하는 본질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을 바라볼 때 투자는 머니게임이 된다.

누군가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사며(탐욕),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매도(공포)한다. 이것이 머니게임의 본질이다.

'그린스펀의 저주'라 불리는 장기간의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 실물자산 가격의 거침없는 상승이 빚어낸 거품과 그 거품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 상황은 자본시장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대표적인 머니게임이다.

2002년 사람들의 행태를 재무학과 연결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투자자들의 미래 예측 능력에 대한 자기 과신과 금융회사들의 쓸림현상을 거품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거품이 형성될 때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투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당장 인기 있는 자산에 집중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금융상품을 팔리듯이 내놓는 현상이 벌어진다. 주가가 오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주가를 계속 올리곤 하지만 대부분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은 적절히 언급하지 않는다.

2007년 급격히 인기를 얻은 '주식형 펀드 시대'도 거울처럼 머니게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자문해 보자. 빛나는 과거 수익률의 성과만 강조했을 뿐 그 결과가 얼마나 높은 위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적절히 나타냈는가. 2~3년간의 단기 펀드 성과를 바탕으로 거리낌없이 장기 믿음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꿈과 희망, 그리고 위험감당능력이 제각각 다른 고



신왕권
CFA한국협회 교육센터장

객들에게 목표수익률뿐만 아니라 고수익펀드에 잡들어 있는 고위험의 속성도 적절하게 제시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버핏이 투자한 50억달러의 골드만삭스 전환우선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고정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상황이 호전

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는 누군가 비싸게 사줄 것을 바라지 않았고, 시장가격이 본질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때 안전한 마진을 확보해 투자한 것이다. 현재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언제 안정적인 반등 장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본질가치보다 하락해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금융상품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위험에 견딜 수 있는 힘이 큰 투자자만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투자가 옳다는 믿음은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합한 투자철학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역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귀중한 자산을 추천하고 돌보는 전문가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시장의 위기가 커질수록 자본시장의 존재이유를 돌아보고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사명감을 되새겨야 한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윤리의 실천이 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투자자와 시장은 그 대가로 '신뢰'라는 값진 자본을 선물할 것이다.

현장글

안현덕 기자

개미투자자들의 비애



코스닥 상장사인 A사에 투자한 신동희씨(36·가명).

그는 최근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느끼는 '개미 투자자의 비애'에 대해 토론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백방으로 알아봐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어렵게 시간을 내 A사에 연락했으나 신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른다"는 홍보(IR) 담당자의 짧고 차가운 음성뿐이었다.

신씨는 "바뀐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재벌 2세대' '과거 프로 야구 구단을 운영했다' '전주출신이다' 등 시장에 루머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급락장 속에서 투자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급락장 속 코스닥시장의 주인 변경이 한창이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 상장사는 단지 최대주주로 올라선 회사(개인)명 등 공식서식에 맞춰 기초적인 정보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제공한다.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지는 인수주체인 개인 및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의 설명이다. 규제사항이 아닌지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해당 기업 및 개인에게 정보공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편이 이런지라 투자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주요한 정보와 내용들이 개미들에겐 접하기 힘든 '먼 나라 이야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부는 최대주주가 누군지도 모른다.

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정보의 부재 속에 개미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투자보다는 시장 루머 및 운에 기대고 있다. 관련기관의 무관심 속에 '언제 주가가 오를지 모른다'는 산기루 같은 희망만 강요당하는 셈이다.

주가 하락기 개미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고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시지 않을까. 선택은 해당 상장사 및 시장 운영자의 몫이다.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38면

취재여록

'눈총' 받는 증권유관기관

금융업계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유관기관들에 싸늘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위기로 은행들을 비롯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이 잇따라 연봉 삭감 등 지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증권선물거래소는 연초에 하겠다던 지구노력을 계속 미루고 있고 증권금융 등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아 '불감증'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주가 폭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고 증권사들도 적자에 시달려 증권맨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한 증권회사 직원은 "은 나라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유관기관들의 임원 연봉은 최고 10억원에 이르고 과장급도 역대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허탈해했다.

실제 이들 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고 복지 수준도 높다. 증권사에 비하면 업무 강도도 그리 세지 않아 심지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직원들조차 '신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라고 부러워할 정도다.

예탁원은 이미 연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 경영'이란 지적을 받았고 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골프회원권 일부를 팔고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이들은 조만간 지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경영을 잘못해 국민의 세금을 수혈받는 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에서 단순히 연봉이 높다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연봉을 내리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예탁원을 제외하고 모두 공기업이 아닌데 여론의 못매를 맞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업무가 독점적인 데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를 수익으로 하는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예탁원만 공기업으로 분류돼 있고 정작 예탁원의 대주주인 거래소는 민간기업으로 돼 있는 것은 이상한 구조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증권유관기관들이 '신의 직장'을 줄길 때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할 시기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바란다.

조진형 증권부 기자 u2@hankyung.com

국민연금 국내채권 사들인다

연말까지 해외투자 13조7천억원 줄여 투입키로

국민연금기금이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연말까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3조7000억원 정도 줄이고 이를 국내 채권에 투입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말까지 해외 주식투자 비중 목표를 전체 기금(9월 말 기준 228조원)의 6.8%로 정했으나 이를 3.6%로 수정하기로 했다. 결국 해외 주식투자 비중 목표치가 3.2%포인트 낮아지며 투자금액으로 7조3000억원 안팎이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채권투자 비중 목표치도 당초 계획인 6.9%보다 2.8%포인트를 낮춰 4.1%로 수정했다. 해외 채권투자 비중에서 낮아진 2.8%포인트는 금액으로 6조4000억원 정도다.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주식투자에서 줄인 돈 7조3000억원과 해외 채권에서 줄인 돈 6조4000억원 등 총 13조7000억원을 국내 채

국민연금기금 올해 투자계획 변경

	당초 목표 (투자 비중)	변경 후 (투자 비중)
해외 주식	6.8% -3.2%포인트 (-7조3,000억원)	3.6%
해외 채권	6.9% -2.8%포인트 (-6조4,000억원)	4.1%
국내 채권	66.4% +6%포인트 (+13조7,000억원)	72.4%

*자료=복지부·국민연금공단

권에 넣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투자 목표는 당초 전체 기금의 66.4%에서 72.4%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 목표치인 17%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9월 말 현재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14%로 산술적으로는 3%포인트(6조8000억원) 정도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할 여력이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목표치인 17%에서 ±5%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연말까지 실제 얼마의 돈을 더 넣을지 시장 상황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에서 해외 투자를 줄이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으로 외화 조달이 어려워지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해진 데 따른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 채권투자 비중 목표를 낮춘 데는 통화스왑 거래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기금과 체결한 통화스왑을 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 지급할 달러는 해외 채권을 매각해 조달하고 한국은행에서 받은 원화로는 국내 채권을 매입한다는 게 국민연금기금의 생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또 해외 주식 환헤지 정책을 변경해 당초 올해 말 70%로 잡았던 해외 주식 환헤지 비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김규식기자

‘돈 빌려주는’ 금융사 “돈 없어요”

카드, 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가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여신금융사들은 수신기능이 없어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EI)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채권시장이 마비되자 영업을 축소하고 계열사에서 자금을 수혈받는 등 비상이 걸렸다.

“자금확보 전쟁” -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아달 들어 카드·캐피탈사가 발행한 채권은 모두 36조원으로 총액은 5800억원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월평균 발행액 1조 6230억원과 비교하면 여신금융사들의 영업 ‘실탄’이 3분의1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발행금리도 3분기에는 평균 6.32%였으나 7월 7.34%, 8월 7.55%, 9월 7.71% 등으로 오른데 이어 이달 들어 8.45%로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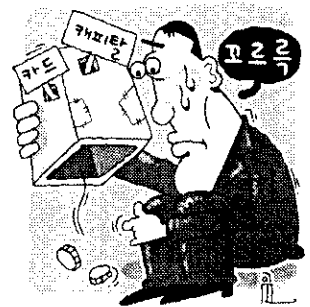
문제는 채권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는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KT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등이 채권을 발행했지만 이달 들어 삼성카드, 현대카드·캐피탈, 신한카드 외에는 채권 발행 선적이 전무하다. 신용한도도 기업이 없는 중소 캐피탈사들은 사실상 자금줄이 마랐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금이 없으니 영업을 축소하고 리스크관리에만 주력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우캐피탈은 하반기 들어 자동차할부 고객기준을 개인 신용평가(CB) 4등급으로 상향했다. CB 4등급은 은행에서도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며 부도율이 1.3%(한국개인신용 기준) 이내로

사인 덕분에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아직은 금리가 문제일 뿐 자금줄 자체가 마른 건 아니다”고 전했다.

“위기, 아직 아니다” = 일각에서는 여신금융사가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들 업체의 영업축소로 가계유동성이



채권시장 마비 카드·캐피탈 자금조달 비상 실탄 3분의1 이상 줄어... 계열사에서 수혈도

평가받는다. 우리파이낸셜도 하반기 들어 할부대출 취급기준을 5등급으로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계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적잖다. 신한캐피탈은 관계사를 통해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파이낸셜은 우리금융에서 3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산은캐피탈 역시 산업은행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주로 금융지주 및 대기업 계열

사인 경우 은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옛 신용위기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곳이 많다”며 “최근 2-3년간 순이익이 상당히 내부 유보금도 충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자동차를 치분하거나 신차 구입을 미루기 때문에 자체 리스크 관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대형사들은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는 상태다. 현대캐피탈은 중소기업들이 취급하지 않는 CB 7등급 고객까지 할부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최근 중고차 할부시장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역시 위기론을 배제했다. 카드사 연체율이 아직 3% 내외인데다 현금서비스도 평소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용위기 당시 돌려막기 등의 피해를 뼈저리게 느낀 탓인지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적으로 영업은 다소 위축됐지만 대부분 지표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준현 기자 abcd@

머니투데이

'금융 허브' 되겠다면서 ... 수수료·이자 따먹기 매달려

이슈 분석 ▶▶ 은행 경영, 이게 문제다

#1. 회사원 박모(45)씨는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리기 위해 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정해진 그의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이었다. 난감해하자 창구 직원이 방법을 알려줬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오면 집값의 75%까지 쫓겨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대출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2.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최모(40)씨는 올 4월 5억원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 1억원을 더 빌리게 됐다. 퇴직보험 캠페인을 하니 가입해 달라는 은행 직원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6억원을 빌려 1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명백한 '꺾기'였지만 그는 다음 거래를 생각해야 했다.

#3. 5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은행 직원에게 해외 '펀드'에 들어가는 권유를 받았다.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1억원을 넣었다. 도중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금 회복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 이제 지금은 반 토막이 나버렸다. 담당자는 교체된 뒤였다. 김씨는 "은행원이 너무 강하게 말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의 영업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다. 국제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나라에서 은행들은 왜 아직도 이런 영업을 하는 걸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은행의 실력 때문이다. 능력은 안 되는데 실적은 내야 하는 게 은행들이다. 그러다 보니 질보다는 양, 혁신보다는 구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악명을 요구한 고위 관료 출신 금융

'질보다 양' 주택담보대출 출혈 경쟁

고객 위험관리는 뒷전 ... 꺾기도 여전

응인은 국내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 "아직 멀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늘린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 보자. 2004년 말 169조원이던 것이 올 8월 232조원으로 불었다.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것은 초보적인 영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종 90% 이상이 변동금리형이라는 점이다. 당장은 고정금리형보다 싸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면 고객들은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은행들이 산 고정금리 대출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다"며 "은행은

〈글 쓰는 순서〉
〈상〉 받을 건 다 받고
〈중〉 아직도 구태영업
〈하〉 주인이 없다

고객의 위험을 관리해 줘야 하는데 이를 고객과 시장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학·지방자치단체의 구내 은행으로 돌아가기 위해 벌이는 경쟁은 거의 사투 수준이다. 시중은행 고

위 관계자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는 기부금만 최소 100억원을 내야 한다"고 털어놨다. 또 신도시나 뉴타운이 생기는 곳엔 몇십m 간격으로 은행 지점이 들어서기도 한다. 은행 지점 관계자는 "망해서 나가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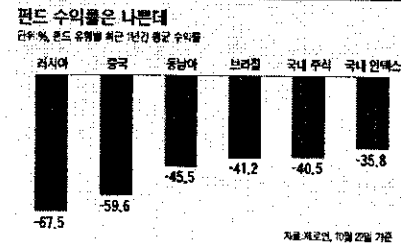
요즘 은행 돈이 바닥난 것도 이 같은 외형 경쟁의 결과인 셈이다. 은행권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2006년 109%에서 올 9월 124.2%로 높아졌다. 정부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하면 대출은 103.2%"라고 설명하지만 예금

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들어 예대율이 급격히 높아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며 "외형 확대도 좋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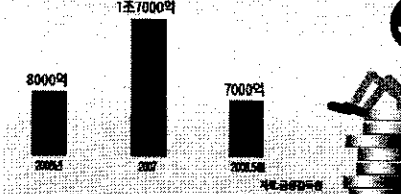
은행들은 줄어든 예대마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무슨 첨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길목 지키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펀드나 보험을 팔면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송금과 같은 생활 서비스에 비싼 요금을 물리는 식이다.

문제가 되면 곧바로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도 여전하다. 비울 때 우산을 뺐는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건설사 자금담당 임원은 최근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를 연장받느라 애틀 먹었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금리를 높이는 것은 물론 추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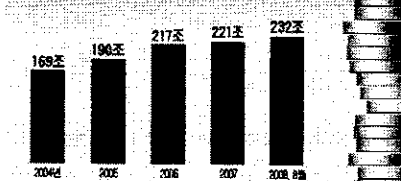
이처럼 은행들은 고객에게 뺨박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아직 구태의연한 관행을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 모 은행은 직원들이 집 살 때 2000만원을 거저나 다름 없는 연 1%에 빌려주고 있다. 이 같은 두통한 불복효과는 중부 지원이 있을 때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엔 노조도 포함된다. 고임금인대로 근무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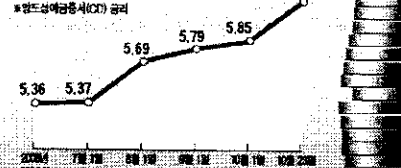
은행권 펀드 수수료 수입은 높아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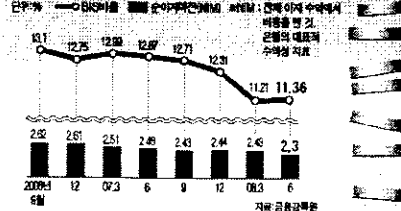
외형 경쟁 속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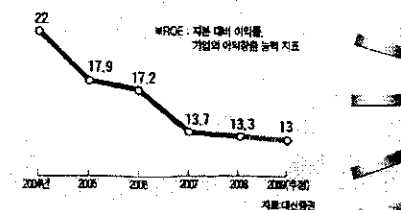
금리 올라 상환 부담 커져
단위: %



나빠지는 국내 은행 경영지표들
단위: %



자기자본이익률(ROE)



정부·한은, 펀드환매 대비책 줄다리기

금융위 "기관의 통안증권 등 한은이 매입을"
한은 "비상 상황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정부의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증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정부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대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펀드런(fundrun·펀드환매 사태)에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팔고 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자산운용사들이 환매(펀드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는 커녕 주식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느라 기관투자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보유 중인 통화안정증권이나 국공채 등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RP)로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발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공채 등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사들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펀드런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비상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기관투자자들에게 대한 유동성 지원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한은의 반대에 부딪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가를 추가로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들의 유동

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25조원어치를 한은이 사들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창용 금감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은은 "금융시장의 위기가 진행됐을 때를 대비한 비상 대책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창태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만기가 25조원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다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행채 매입에 대해 굳은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은행채를 매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금융회사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의 견해차

정부 입장	정점	한국은행 입장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기관투자자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국채 등을 한은이 사들라"	펀드런(fundrun·펀드환매 사태) 대책	"비상상황에서나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 조치가 필요한 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하겠다"
"연말까지 25조원어치 만기 돌아오는 은행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달라"	은행채 대책	"25조원어치를 다 한은이 사줄 수는 없다. 은행채 매입에 대해 굳은 결론 내렸다"

매일경제

2008년 10월 24일 a01면

韓·中 통화스왑 한도확대 추진

오늘 재무장관회의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외화자금 이 필요할 때 서로 외환보유액을 지원하는 '통화스왑 한도'를 상당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24일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은 기존의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해 외화자금 이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을 서로에게 지원하는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한·일 간 130억달러, 한·중 간 40억달러로 책정돼 있다. 통화스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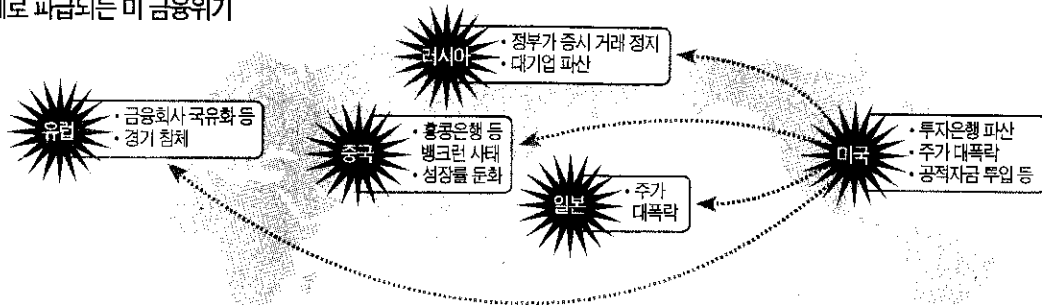
계약이란 어떤 한 나라에서 외화자금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 혹은 달러화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한·중 두 나라가 통화스왑 한도 확대에 합의한다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800억달러 규모 한·중·일 다자화 펀드 출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기간 중에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CMI 공동기금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세계 1위 외환보유액(9월 말 기준 1조9060억달러)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금융협력력을 강화했다는 점만으로도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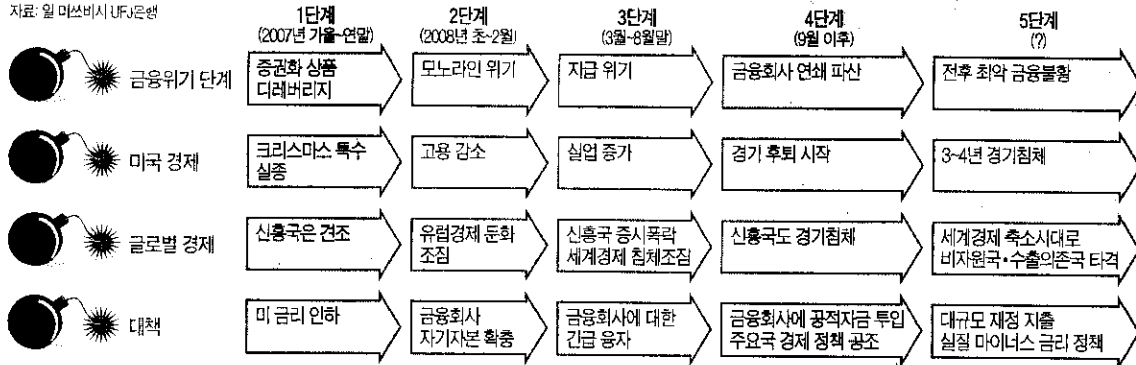
이진우·김태근·안정훈 기자

세계로 파급되는 미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 단계 ※현재는 5단계 진입중

자료: 일 미쓰비시 UFJ은행



한국 '부도위험' 사상 최고수준 치솟아

CDS 프리미엄 연일 급등 행진...473bp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같은 신용등급의 다른 국가보다도 100bp(1bp=0.0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5년 만기 한국 외평체 CDS 프리미엄은 22일(뉴욕 현지시간) 전날보다 53bp 오른 473bp로 급등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달러 무한 공급 소식에 지난 14일 257bp까지 하락했으나 열흘도 안 돼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은행 및 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우려를 반영하

각국의 CDS 프리미엄

	(단위:bp)
한국	473
중국	238
말레이시아	334
태국	334
필리핀	677
베트남	740
브라질	495
러시아	893
멕시코	480
칠레	261

*22일 기준 자료:국제금융센터

가운데 최근엔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은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10여개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

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군 국채 금융센터 소장인 "해외에서 한국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하면서 이머징마켓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같은 신용등급의 태국 등에 비해 100bp 이상 높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머징마켓 국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데다 한국의 경우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부동산 대출로 인한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613bp로 하루 만에 96bp 치솟았으며 국민은행 643bp, 신한은행 665bp, 우리은행 680bp 등 국책은행, 시중은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은행이 600bp대로 올라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정부도 정치권도 위기불감증

금융위·한은 자금지원 엇박자...국회는 경제팀 경질 요구만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주식,채권, 외환시장이 폭풍 전야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지만 정작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추도 모자랄 판에 허술한 위기의식과 정략적 이해 관계,기관 이기주의에 휘둘려 글로벌 위기에 '국내용 대책'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A3,4,5,6면

경제위기 대응의 사령탑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일 다른 목소리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은행채 직매입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일이라지만 국가 시스템으로는 이를 거중 조정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정치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조차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경질하라는 주장은 없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경제팀 몰아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시가 급한 '은행 대 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경제팀 경질과 맞바꾸자고 뭉치를 부리기까지 한다.

정부 역시 신속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키코(KIKO) 대책,건설업계 지원 방안 등은 대표적인 실기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외화·원화 유동성 지원 대책도 선제적이거나 충분

미국과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시기



금리 인하	10월8일	10월9일
공매도 금지	9월19일	10월13일
은행채 매입	9월말	없음
CP·CD 매입	10월7일	없음
예금보장 확대	10월3일	없음
은행에 자본 투입	10월3일	없음
중앙은행간 스왑	9월18일	없음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세계 경제 위기를 단순한 금융위기로 보거나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도 문제다. 금융위기는 전 세계 동시 불황의 서곡이고 짧게는 2~3년,길게는 1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에 나서고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워야 외화 유동성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며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어떤 재정정책이든 지금 당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식/이태영/저거현 기자 skiss@hankyung.com

컨틴전시플랜 제 때 가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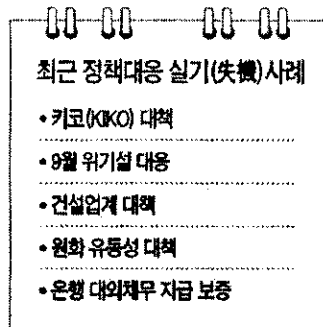
(비상계획)

구호만 앞선 대책 남발로 키코 등 실기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늘 뒷북이다.

키코(KIKO) 사태, 건설업계 위기, 은행 유동성 문제, 9월 위기설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은 너무 늦었고 단편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뒤늦게, 그것도 짊짊 짊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셈이다.

한해 상품 키코로 인한 손실문제는 올초부터 현실화됐지만 정부의 공식 방침은 '사적인 계약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였다. 하지만 키코



로 인해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으로 선화했다.

이미 키코 계약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도산 위험성으로 영업이나 자금 조달에 타격을 받은 뒤였다. 정부가 건설업계 대책을 내놓은 것도 건설한 중견 업체까지 위험하다는 루머가 쏟아진 후였다.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있더라도 제

때 가동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책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사안들이다.

9월 위기설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나중에 보니 이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임태되고 있었던 때였다. 한 연구소는 7월 리포트를 통해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우리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도 대외 충격이 너무 커서 좀 완충하는 정도였겠지만 그래도 언론이나 연구소의 경고에 보다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지형 기자 jh@hankyung.com

과감한 재정 투입 연착륙 유도하라

내년 예산 공격적으로 수정, 내수 실종 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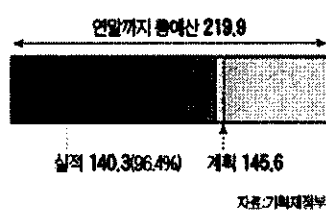
금융시장 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 경제의 타격 속에서 국내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국회·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출 감소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정부가 예산을 더 풀어서라도 일정 부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은 시중에 돈이 없다기보다는 돌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자금난에 봉착한 부문을 찾아내 직접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런 정책 수단으로 재정정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정집행 실적

(단위:조원)
*8월말까지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 사업비 합산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대운하에 비금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거나 에너지, 환경 사업 중에서 그동안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을 앞당겨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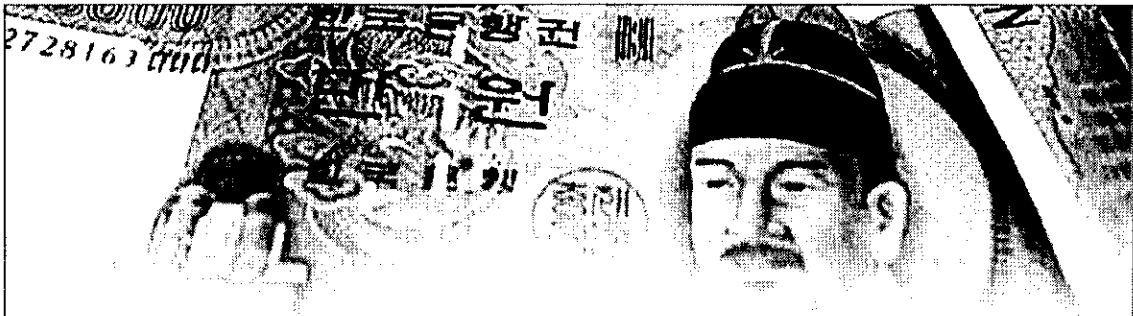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재정에서 그 부분을 대위줘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난 2일 정부의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결과 8월 말까지 전체 재정 집행 실적(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 사업비 등 포함)은 140조3000억원으로 계획(145조6000억원) 대비 9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다.

이용철 재정부 예산실장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하고 추경 예산(4조9000억원 규모)을 포함해 재정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원화가치 하락률 세계최고

9월기준 원·달러환율 작년비 22.4%절하
하루 변동률도 주요국 통화중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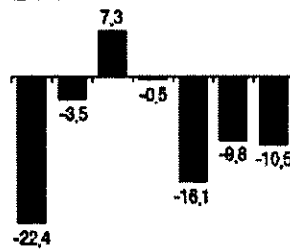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율은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4분기 말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13원 10전과 9원30전으로 전분기보다 4원90전, 4원50전 확대됐다. 특히 환율이 급등락했던 지난 9월 일중 변동폭과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24원70전과 18원10전에 달했다.

이 같은 일중 변동폭은 1998년 3·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은 9월 위기설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모건스탠리 등 외국 투자은행(IB)으로의 부실화산 우려 등으로 환율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전일 대비 변동률 기준)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통화와 비해서도 최고 수준이다. 원화 변동률은

올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률
(단위: %)



한국 유로 일본 대만 인도 호주 영국
·연초~9월말까지

0.85%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0.25%), 말레이시아 링깃화(0.29%), 일본 엔화(0.63%), 호주 달러화(0.79%), 유로화(0.56%) 등을 압도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율 또한 주요국 통화보다 훨씬 높았다. 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07원으로 지난해 말(936원 10전) 대비 22.4% 절하됐다. 이는 통화 절하율이 높은 인도 루피아화(16.1%)나 뉴질랜드 달러화(12.8%), 필리핀 페소화(12.3%)는 물론 영국 파운드화(10.5%), 호주 달러화(9.8%), 캐나다 달러화(6.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7.3%, 6.7% 절상돼 대조를 이뤘다.

환율 불안 등으로 거래량은 2분기 연속 감소했다. 3·4분기 중 은행 간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38억5,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7% 감소했다. 현물환거래는 81억5,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9.2% 감소했으며 선물환과 외환파생거래는 7억4,000만달러와 52억달러로 각각 10.2%와 3.2% 줄었다. 반면 외환스와프거래는 97억6,000만달러로 1.7% 늘었다.

이와 함께 3·4분기 중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77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65억달러 급감했다. 2005년 4·4분기(72억달러)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조선·중공업체들의 수주가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 확대,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환율상승기대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역외차익결제선물환(NDF)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101억5,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2.5% 감소했다. NDF 순매수 규모는 68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28억7,000만달러 줄었다.

/홍준석기자

국내 은행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여러 경영계획이 국제 금융불안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 표류 중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분 매각이나 외국은행 지분 인수 절차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국민은행은 당초 ING생명 주식 14.9%를 주당 50만원 선에 ING그룹에 되팔아 6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NG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ING생명 지분 5.1%를 주당 54만 3000원에 팔았다.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은 올 6월 취임 당시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을 위한 자금확보 차원에서 연말 안에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4조원 상당의 자사주를 팔겠다”고 밝혔다. KB지주는 자회사 주식 교환을 통해 얻은 1850만 주(5.2%)는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하고 자사주로 취득한 1684만 주(4.7%)와 주식매수청구로 보유하게 된 3826만 주(10.7%)는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물량만 먼저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3분기에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이행약정(MOU)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제 금융시장 경색 이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손실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 MOU 5개 항목 중 총자산순이익률(ROA·은행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중국 길림은행 지분 19.67%를 21억6000만 위안을 주고 확보하기로 했으나 최종 지분 인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수금액도 계약 당시 32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게다가 환율 관련 파생상품인 피벗 계약을 맺은 태산엘씨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상당 규모의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은행들 ‘이익 창출 능력’ 곤두박질

(자기자본 대비이익률)

2004년 22%서 올해 13% - 대출 급증 탓

국내 은행들은 대출 확대 등 자산 경쟁을 통해 외형은 크게 부풀었지만 내실은 이를 따르지 못했다. 은행 하나가 한 해 수조원씩 수익을 내던 시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2006년 이후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지표는 물론 순이자마진·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수익성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BIS 비율은 2006년 9월 13.1%에서 올 6월 현재 11.36% 수준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이 서로 대출을 늘리려고 때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돈을 빌려준 게 큰 이유다. 대신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국내 은행의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중은 72.5%로 홍콩(49.4%)에 비해 크게 높다”며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BIS 비율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업실적 조사기관인 IBES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

의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72.3%) 역시 홍콩(43.3%)·싱가포르(47.2%)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다.

게다가 최근 급락한 주가도 은행의 BIS 비율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과거 부실 기업 회생을 지원했던 은행들은 보유했던 해당 기업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출자했다. 한때 이들 출자전환 기업 주가가 경총 뛰면서 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크게 올라가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유 주식 주가가 급락하자 이번엔 반대로 평가이익이 줄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될 전망이다.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ROE)도 2004년(22%)을 정점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은행의 자본은 늘었지만, 이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프로

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도 지금 외선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은 2005년 이후 매년 12.8%, 32.9%, 36.3% 증가해 전체 대출 증가율의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높고, 돈이 묶이면서 은행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BIS비율=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건전성 지표. 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8%를 넘어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정상 금리에 빌릴 수 있다.

◆순이자마진=전체 이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예금을 받아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특별취재팀=남윤호·김준현·안혜리·김원배·조민근 기자 yhnem@joongang.co.kr

G20

내달 15일 워싱턴서 정상회담

美 대통령 당선자도 나와 새 금융질서 논의

아시아위기후 99년 출범

전세계 GDP 90% 차지

G20가 출범한 것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이다. 당시 태국에서 시작한 외환위기가 도미노식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대화 채널 필요성이 제기됐고 99년 12월 베를린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G20 국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중 90%를 차지하며 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세계 교역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제 회의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운용에 상당한 영향력과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다. G20은 99년 발족해 매년 한 차례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왔으며 올해 회의는 11월 8-9일 브라질에서 개최된다. G20 회원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도 포함된다.

G20은 또 회원국 경제 규모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를 두지 않고 비공식 포럼 성격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데이비드 페리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오전(현지시간) 국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속 이어질'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썼다. 정상회의 자체에 '일련의(series)'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급조된 회의지만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처지에서는 정상회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달 4일 대선에서 승리하는 차기 대통령 참석 여지를 열었다.

올해에 한 차례 더 정상회의 개최가 합의된다면 내년 1월 중순 퇴임을 목전에 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 개최에 간간히 손을 미국으로서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 판을 짜는데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미국과 유럽 등 G7(경제선진 7개국) 국가에 의해 주도된 금융위기 관련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 전원이자에도 여전히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

G20 금융위기 정상회담

일시	2008년 11월 15일
장소	미국 워싱턴
형식	부시 미국 대통령 초청

주요 의제

- 전 세계 금융위기 해결 공조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 국제금융부문 금융권 규제 협력 확립
- 신브레튼우즈체제 구축 등 자본주의 수호 노력

참가국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 의장국(실질적으로 EU 집행위원장 참석)

연내 한차례 더 회동... 실무조직 만들어 실행계획 마련

백악관 부대변인 "경제·금융 잘 아는李대통령 역할 기대"

에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참석을 열어둔 것은 정상회의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배려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번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프래토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역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 문제(경제와 금융)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고 밝혔다.

참석 범위가 G20 국가로 정해지고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유엔 사무총장, 금융안정화포럼(FSF) 의장 등도 초청되면서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논의의 대표성을 얻게 됐다.

20개국(EU 집행위원장 포함) 정상들이 갑자기 모이는 자리인 만큼 준비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초유의 위기 후 세계를 대표하는 20개국 정상이 회동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은 그럼만큼 여유롭지 않다. 정상회의를 가장 먼저 제안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위기 발원인 뉴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동 목적에 관해서만 분명히 정리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재발 방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 원칙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나라마다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처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

라도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페리노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할 내용을 실행에 옮길 실무조직(워킹그룹)을 설치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올해에 한 차례 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정상회의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G20 회의가 비록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논의도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기 이후 의제로 지난 7월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 무역기구(WTO) 도oha개방어전터(DDA) 협상이 이번에 다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도다.

미국인 '시장탈출 러시' 전세계 증시 초토화

■ 세계증시 폭락부른 미국발 '펀드런'

미국인들의 공포의 펀드런(펀드 대량 판매)이 도무지 끝을 알기 힘든 글로벌 증시 폭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인들이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겪는 엄청난 위기인데다 빛으로 형성한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차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화가 쉬운 펀드에 몰리면서 판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투자자의 환

압박에 떠밀려 글로벌펀드들이 잇따라 현금화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주식을 팔고 있다. 위기국면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 러시도 이와 연장선에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이듯 외국계 증권사가 공격적인 매도 보고서를 쏟아내며 또다른 희성양 만들기에 바쁜 인상을 주는 것도 이같은 속사정과 관계가 깊다는 관측이다.

◇난생 처음 겪는 위기...미국인 아노미=이마징포트폴리오닷컴(EPFR)에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로 미국인이 즐겨 투자하는 인터내셔널펀드에선 128억5300만달러가 유출, 전세계 펀드중 가장 유출폭이 컸다. 9월엔 149억5500만달러가 유출됐고 올들어선 333억56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한국관련 펀드에서도 무섭게 자금이 나갔다. 9월 191억7900만달러가 유출된 데 이어 10월들어 185억6200만달러가 유출됐다. 하반기에는 인터내셔널펀드 등 글로벌펀드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상반기에 대거 유출됐다가 하반기 들어 유출이 뜸해진 미국펀드도 10월 들어 다시 대량 유출로 돌아섰다. 10월 들어 15일까지 미국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95억7000만달러다. 올들어선 모두 135억6800만달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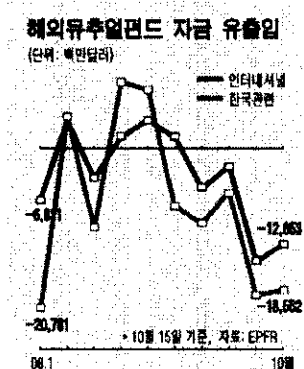
저축대부조합 부도사태, 콜럼비아타입 파산, 9·11테러사태 등 주가하락기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던 미국인들이 펀드판매에 나서는 건 이제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생애 처음으로 이같은 금융 위기를 겪는 탓에 거의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은 투자자 분위기에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본사에선 글로벌 지사 전체를 보수적이고 딱딱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사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다. 고비만 넘으면 잘 해결된다'고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관계자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한국위기 조정 배경으로 작용=미국인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데



처음 겪는 위기에 미국인들 '당황' 빛깔으려 전세계서 무차별 환매 거래 활발 국내증시 '우선 타깃'



는 워낙 저축을 안해 차입에 대한 내성이 약한 탓도 크다. 호황기에 미국인의 저축률은 거의 '제로'였으므로 그간 축적한 재산은 대부분 빛으로 살아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있는 자산을 급매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부동산담보대출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했다. 그러나 집값이 폭락하면서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은 집값보다 모기지 잔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RB)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현재 67%에 달한다. 이 가운데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영국(4.8%) 일본(3.1%)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쏟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운용사 관계자는 "잇단 '팔자' 보고서를 '한국 때리기'로 보는 건 단견"이라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이들이 신흥시장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한국에 대해 매도를 외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증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나라에 대해선 매도 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금융자산 가운데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다 소득 일부를 적립식 등으로 저축한 부분이 많아 미국처럼 '펀드런'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인의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은 14%로 낮은 수준인데다 이중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불과하다.

한편 교보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투자의 지수대별 매수동향을 보면 자금의 23%가 1300대에서 매수돼 1100~1200대에서 -7~15%의 손실을, 3년 미만의 투자자들은 평균 27%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는 손절요인을 넘긴 손실률로 대형악재가 풀출하지 않는 한 펀드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美기업 실적쇼크 현실로

3분기 순익 듀폰 30%↓ -최악 경기침체 우려 커져

마크 파버 “달려 휴지될 것”

금융위기발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기업들의 어닝 쇼크(실적 악화)로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에선 근래 볼 수 없었던 최악의 경기침체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급락하고, 이는 전 세계 증시의 도미노 폭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양상이다.

다국적 제약업체인 머크는 22일 3분기 순이익이 10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약품 판매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보고 전체 직원의 10%인 7200명을 감원키로 했다. 제조업체들도 3분기 순이익이 급감했다. 세계적 화학업체인 듀폰은 3분기 순이익이 30.1% 감소한 3억6700만 달러에 그쳤다. 듀폰은 올해 연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3.30달러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7달러를

밑도는 것이다.

반도체회사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도 3분기 순이익이 26% 감소했으며, 4분기 EPS 전망치도 36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춰 잡았다. 3분기 순이익이 64% 급감한 야후는 연초 1000명을 줄인 데 이어 추가로 1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건강·위생업체인 김벌리클라크는 티슈 매출이 감소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9% 줄었다. 이 밖에도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곳이 많아 실적 악화를 공개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 악화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시장의 관심은 경기침체의 강도에 쏠리고 있다. CNBC방송은 이날 실업률이 10%를 넘고 한 분기에 국내 총생산(GDP)이 7.8% 감소했던 1973~1975년, 1980~1982년의 심각한 상황이 재연되진 않겠지만 1990~1991년, 2000~2001년의 비교적 짧았던 경기침체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 주요기업 3분기 순익 감소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64.0	야후
-30.1	듀폰
-28.0	머크
-27.0	보잉사
-26.0	텍사스인스트루먼트
-24.0	아메리칸익스프레스
-9.0	김벌리클라크
-6.4	캐터필러

“24개월가량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등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수백개의 헤지펀드가 무너지는 등 경기침체의 후유증이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 비관론자로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크 파버는 이날 “미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 속에 인플레이션이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짐바브웨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모든 세금이 빚잔치로 탕진될 수밖에 없다”며 “달러가 결국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이원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올해 글로벌 증시는

中 -63%·日 -44%·美 -35%

을 들어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또 코스닥지수는 작년 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앉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3일 1049.71포인트로 내려 2005년 7월12일(1043.8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27.5% 급락했다. 이 같은 월간 하락률은 1987년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다. 장중에는 투매로 1028.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고점(2063.14)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1년도 채 안돼 중

시가 반토막난 셈이다.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44.6%나 떨어졌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해 작년 말 704.23에서 이날 308.95로 56.1%나 빠졌다.

미국 다우지수는 대공황(-88%)과 오일쇼크(-40%)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지만 지난 22일 종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하락률은 35.7%로 코스피지수보다는 낮다. 영국 FTSE지수(-37.4)와 독일 DAX지수(-43.3%) 등 유럽 증시도 국내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은 44%와 63% 하락해 아시아 증시의 충격

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무너질 때 버텼던 국내 증시가 내부 유동성 위기 등이 불거지며 뒤늦게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간 신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연이은 정부 정책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종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미징 아시아 국가들의 디폴트(부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미래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대형銀 줄파산·글로벌 불황 눈앞에”

미쓰비시UFJ “위기 5단계중 최악국면 진입”

“금융위기는 마지막 단계인 전후 최악의 금융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UFJ은행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이다.

미쓰비시UFJ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5단계로 구분했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면 올 들어 MBIA 압박 등 모노라인(채권 보증업체) 위기가 2단계, 베어스턴스 등 일부 금융사와 대형 헤지펀드의 몰락이 3단계였다는 것이다. 이어 9월 이후 세계적인 증시 대폭락과 금융사 연쇄 파산이 벌어진 4단계를 거쳐 현재 대형 은행 연쇄 파산

등 금융 공황과 세계경제 축소를 몰고올 5단계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2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목받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미국 금융시장은 마지막 12단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주가 급락(10단계)과 유동성 고갈(11단계)을 거쳐 금융사 대규모 파산이 발생하는 12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며 향후 몇 주와 몇 달간 금융과 경제는 충격을 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전문 CNBC방송은 “시장은 바닥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번

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진정한 바닥은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의 피터 미탈레스 대표는 “증시가 끔찍한 변동성 장세를 펼치며 소위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증시 변동성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어섰다”며 “VIX가 평상시 수준인 40 정도로 떨어져야 금융시장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VIX는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 높을수록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최연환/유병연 기자 yoo@hankyung.com

中 증시 경기부양책 안통하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속속 발표됐지만 중국 증시는 선뜻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3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07% 떨어진 1875.56에 마감해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 키오(KIKO) 사태처럼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금융주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수출 환급세 상황 조정에 이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왔으나 가격 하락 속도를 줄여줄 뿐 시장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수반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즉각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승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반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은행의 부실

대출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희석시켜 준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안정에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전종합지수는 0.76%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한편 정부가 부가가치세 개혁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민간이 받을 혜택은 GDP의 1%에 가까운 2000억위안(40조원)으로 추정되고 내년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한나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12면

中 전방위 감세로 경기부양 나선다

부가세 2000억위안 감면-부동산 거래세 한시적 면제

중국이 내수형 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잠정 면제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전날 수출증가세 환급률을 인상한 데 이어 조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전방위로 쏟아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봉황TV는 23일 중국 국무원이 재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을 승인,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세 규모는 1500억위안(30조원)에서 최대 2000억위안(40조원)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전날 전체 수출품목 중 25.8%에 해당하는 3486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중국이 이처럼 감세 카드를 꺼내

는 이유는 △기업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불경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봉황TV는 이와 관련, 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경제성장의 3대 요인인 투자와 소비, 수출을 모두 촉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날 개인주택의 부동산판매에 대한 거래세를 잠정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양도시 토지증치세도 안

받기로 했으며, 담보대출비율도 80%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이율의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85%에서 70%로 낮추고, 회사의 보조금 금리도 0.27%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매입자는 최소 20%가량 부담을 덜게 됐다.

상하이시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주택매입 후 2년이 지난 뒤 되팔 경우 영업세 5%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지난대학의 가오옌통 교수는 "감세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일본 금융 '제2 부흥기' 맞나

“금융위기로 몰락한 미국 유럽 등 서구 금융권을 이제 일본이 접수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일본 금융회사들이 10여 년 전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해진 덕분에 이제 공격적으로 서구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등 '제2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일본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과 사모펀드 업체들이 싼 값에 일본 금융회사들을 사들인 후 막대한 이익을 본 방식을 일본이 똑같이 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미국의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유럽 사업 부문을 2억2700만달러에 인수한 노무라의 시바타 다쿠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일본 기업들이 몰락한 미국 금융권에서 기회를 놓친다면 '바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본 최대은행 미쓰비시UFJ 그룹(MUFG)은 이날 90억달러를 쏟아 부어 미국 2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지분 2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FT는 일본 금융의 해외 인수 붐을 1990년대 장기침체를 겪은 후 최근까지도 외국계에 밀리는

불붙은 일본의 해외 기업 사냥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	미국 모건스탠리에 최대 90억달러 출자
노무라증권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유럽·중동 부문 인수
스미토모미쓰이은행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에 10억달러 출자
미즈호크레디트은행	미국 메릴린치에 12억달러 출자
도쿄메이저은행	미국 웰라블파이낸셜라이프에 47억달러 인수
다케다생명보험	미국 밀레니엄 88억달러에 인수
에이지	미국 M&A 30억달러에 인수
시노노기제약	미국 사이알파에 14억달러에 인수

※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현상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사실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하기 전만 하더라도 일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노무라가 아닌 리먼브러더스가 최대 증권사였다.

시바타 COO는 “외국 금융계의 일본 지배로 인해 노무라가 현상유지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일본 금융회사들의 주요 고객인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화된 것도 일본 금융회사의 해외 인수 붐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일본 국내 인구 감소에 따라 도요타와 파나소닉 같은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은행들도 해외 진출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일본의 엔화 역시 23일 현재 연

초 대비 달러화에 대해 13% 가까이 통화 가치가 상승해 미국 금융회사 인수에 유리한 입장이다.

일본 금융자본이 월가 투자는 행들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올해 1월부터다.

일본 2위 은행 미즈호가 미국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현재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합병)에 12억달러를 투자했고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은 영국의 바클레이스에 약 10억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일본 공습’을 시작했다.

도쿄 주재 UBS 투자은행 부문 공동회장인 톰 이토는 “이 같은 투자 현상은 일본(금융)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윤원섭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12면

엔화 96엔대로 급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

수출기업에 타격...증시 급락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23일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면서 도쿄 증시는 폭락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96엔대로 전날보다 2엔 정도 올랐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96엔대에 진입한 것은 올 3월 이후 처음이다. 유로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유로당 124엔대에 달했다. 전날보다 3엔 이상 급등한 것으로, 2003년 1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지난 7월 하순까지만 해도 유로당 169.97엔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3개월 새 25% 오른 셈이다.

엔화 강세는 일본이 ‘상대적으

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위기의 뿌리인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적은 데다 외환보유액도 9970억달러(8월 말 현재)로 중국(1조8080억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돈)이 청산되고 있는 것도 엔화 강세의 원인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등 고금리 국가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근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과 금리인하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때문에 외환시장에선 달러나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 주가에는 악재다. 수출기업들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한때 658엔 떨어져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8016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달러, 휴지조각 될 수 있다” 경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가 당초 우려보다 훨씬 길고 심한 침체를 맞을 것이라고 22일(현지 시간) CNBC를 통해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이 향후 2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기침체는 예년보다 그 기간이나 심각함이 3배에 달하는 등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 비관론자로 ‘닥터 둠’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투자가 겸 경제 분석가 마크 파버는 더욱 어두운 미래를 예측했다. 이날 런던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파버는 “늘어나는 재정적자 속에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이 자국 화폐 가치가 몰락한 짐바브웨와 같은 처지에 몰릴 것이며 달러화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결국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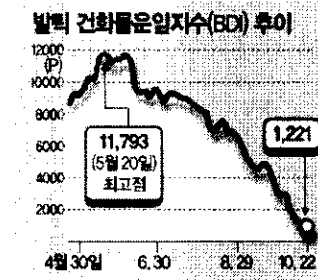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경기 침체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업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감원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소비지출 위축은 다시금 기업실적 부진과 감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주요

마크 파버 “美 재정적자로 파산의 길 걸을 것” 유럽증시 큰폭 하락… BDI도 6년만에 최저치

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항공기 전문업체 보잉 수익은 37% 줄어들었으며 와코비아도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기업이 전 세계 75개사에 이르며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65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히는 등 기업활동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감원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3280명(10%) 감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형 전자소매업체 서킷 시티, 제너럴모터스(GM), 야후, 메릴린치 등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해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약회사 머크도 10%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소비자 경제의 위축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리서치회사 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3·4분기 미국 소비지출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전체 자산의 12%를 잃어 버린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불황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날 유럽증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국, 독일증시 등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날 상승했던 프랑스지수까지 떨어지면서 전 유럽은 실물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또 국제 해운물동량을 나타내는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도 6년래 최저치로 하락하고 올해 고점대비 90% 폭락하는 등 세계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날 BDI는 전날보다 5.5% 떨어진 1221을 기록해 올해 최고점인 지난 5월 20일의 1만 1793보다 무려 90% 빠졌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9%, 2009년에는 3%로 예상하는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홍콩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앞으로 5~6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lhyonchoe@innnews.com | 채지용기자

IMF에 손벌린 국가 벌써 10개국

동유럽·남미로 확산...러시아 신용등급 '부정적' 하향조정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부도 위기에 몰린 국가들이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한 국가가 10여 개국으로 늘어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22일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파키스탄 당국이 IMF에 구제금융 지원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며 "IMF 대표단은 며칠 내 파키스탄의 경제적 안정과 금융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가 파키스탄에 지원할 구제금융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이 현재의 자금 부족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 2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100억~15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이달 초 평소 몇 주간 소요됐던 구제금융 실시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합의만 이뤄지면 IMF의 파키스탄 금융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년간 74% 급감해 현재 43억달러로 한 달 정도의 수입품 구매를 결제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벨로루시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벨로루시 중앙은행은 이날 "벨로루시가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IMF에 2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벨로루시에 앞서 우크라이나도 IMF에 150억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IMF는 지난 19일 심각한 예금인출 사태와 은행의 유동성 위기, 주식



2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 외환거래소 직원이 한가로이 환문을 닫고 있다. 유로화 대비 헝가리 통화 가치는 지난 8월 말 이후 17%나 급락했다. [로이터]

시장 붕괴 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40억달러를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화폐가치가 12%나 떨어지면서 외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밖에 헝가리 아이슬란드 세르비아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헝가리 포린트화의 유로화 대비 환율은 22일 지난 8월 말 이후 17%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헝가리 정부는 최근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긴급조치로 금리를 기존 8.5%에서 11.5%로 인상했다. 외환보유액 부족도 심각하다.

헝가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170억유로에 불과해 향후 1년 동

안 270억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선 IMF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아이슬란드는 약 60억달러를, 세르비아는 공개되지 않은 액수를 IMF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러시아의 외환표시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3일 보도했다.

S&P는 은행 구제금융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의 장기 외환표시 국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윤원섭 기자

무디스·S&P 美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고백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뉴욕 위정환 특파원】 “우리는 매출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한 직원이 신용도가 의심스러운 모기지담보증권(MBS)에 신용등급을 매긴 뒤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내용이다.

22일 블룸버그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을 감타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미국 하원 주택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신용평가사 직원들이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엉터리 신용평가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다.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도가 의심스러운 수천 개의 MBS에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했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일제히 강등시킨 바 있다. S&P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8550억 달러어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최고 등급인 AAA를 매겼다. MBS의 자산가치 급락은 결과적으로 베이스런스와 리먼브러더스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미국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방안으로 이어졌다.

하원이 입수한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대화 내용은 당시 신용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신용도가 의심스러운 MBS에 대해 좋은 신용등급을 매긴 후 “우리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또 S&P의 한 직원은 모기지 자산 거품이 한창 커지고 있던 2006년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카드로 만든 집(부실자산)이 무너지기 전에 부자

가 돼서 은퇴해 있기를 기원하자”고 썼다.

신용평가사들의 이 같은 엉터리 신용평가 활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4월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 딜(deal)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 “평가모델이 실제 위험의 절반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 “그러게,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딜에 대해 등급을 매겨야 해. 실사 소가 만든 상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에 최고 신용등급 부여 금융위기 사전경고 못해

품이라도 등급을 매겨야 할 겁?”

S&P 직원들이 지난해 4월 MBS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긴 뒤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다. 이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헨리 왁스만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은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직원들이 영혼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들과의 거래를 끊고 대신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신용평가 수수료 받는 데 주력했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모기지 증권 발행회사에 록을 매겨 하는 쪽책으로 작용했다.

신용평가를 하지 않거나 나쁜 등급을 판정할 경우 고객이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위험이 있더라도 가급적 좋은 등급을 기관에 매겨야 했다.

무디스의 전직 임원도 회사 수익 때문에 등급 산정을 잘못했음을 시사했다. 제롬 폰스 무디스 전 영업이사는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이것이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보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데본 사마 S&P 회장은 “2005년 4분기에서 2007년 중반까지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 등급 산정에 적용한 많은 주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이제 분명하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맥대니얼 무디스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우리는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분석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고 항변했다.

골드만삭스 직원 10% 감원

골드만삭스 그룹이 326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최고재무담당자인 데이비드 비니아르는 지난 9월 현 인력을 유지하거나 소폭 채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결국 인력 감축을 결정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

스는 최근 상업은행으로 전환했다.

WSJ는 금융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월가 은행들이 감원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씨티그룹은 지난 18개월 동안 2만4000명을 감원했으며 지난 3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로 인해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덴버그 달만의 리처드 보브 애널리스트는 메릴린치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약 1만명을 감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기자

매일경제

10월 24일 a11면

말바꾼 그린스펀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자란 비난을 받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금융사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그의 지론인 자유시장주의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다. 블룸버그뉴스는 그린스펀이 23일 하원 감독위원회의



금융위기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채무를 주식 매각으로 청산하려는 회사들은 그 주식 일부를 보유하도록 해야 하고 다른 규제들을 통해 부정거래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그린스펀이 청문회 자료에서 "약 40년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세계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자문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상대에 대한 충분한 감시에 소홀해 손실 급증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정부의 7000억달러 규제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과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린스펀의 이 같은 발언은 FRB 의장 시절 금융감독 강화 등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감을 드러내며 자유시장주의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는 2005년 5월에 한 연설에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정부 규제보다 민간 규제가 대체로 훨씬 나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정 기자

매일경제

10월 24일 a23면

버핏도 깨졌다

폭락장에 96억달러 평가손

최근 주가 폭락 때문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자사주로만 96억달러의 평가손실을 보



는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보수 컨설팅업체인 스티븐 앤드 파트너스가 미국 175개 대기업 CEO들의 최근 공개된 자사주, 스톡옵션 등을 근거로 직전 회계연도 말부터 최근까지 평가손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 중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인물은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었다. 버핏은 보유 중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만 96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 다음으로 주요 CEO들의 평가손 규모는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가 66억달러였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는 48억달러,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42억달러, 뉴스코프의 루퍼트 머독은 39억달러로 각각 추산됐다.

이 기간 조사 대상 CEO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총 423억달러(28%)가 줄었다. 175명 중 창업자 출신 CEO 7명의 손실 규모는 155억달러였고 창업자가 아닌 나머지 CEO 168명의 손실 규모는 총 268억달러였다. 이들 기업의 올 회계연도 주가 하락률은 38%에 달했다. 조현점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24일 a02면

두바이유 50弗대로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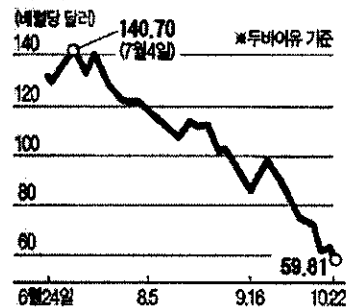
19개월만에- 금값도 13개월만의 최저치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9개월 만에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졌다. 금값은 13개월래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2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3.72달러 급락한 59.81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59.72달러)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초 배럴당 100달러대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두 달도 안돼 반토막난 셈이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원유(WTI) 최근월물도 배럴당 5.43달러(7.5%) 하락한 66.75달러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7년 6월 이래 최저치다. 미국 에너지청이 이날 발표한 주간 원유재고가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가 하락을 부추겼다.

국제유가 추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 가격 역시 4% 이상 하락했다. 이날 12월 인도분 금값은 32.80달러(4.3%) 급락한 온스당 735.20달러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온스당 720달러까지 떨어지며 2007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이로써 금값은 지난 3월 이후 30% 가까이 폭락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구리 가격도 이날 4.1% 급락한 t당 3983달러로 2005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연행락 기자 jran@hankyung.com

신경부

朝鮮語

kmshin@chasun.com



증시 패닉

“바닥이다” “더 빠진다”

코스피 1년새 1000p 추락... IMF때 하락률에 근접
외국인 비중 29%로 줄어... “체질개선 기회 삼아야”

코스피 1049, 1년만에 반토막... 원-달러 환율 10년만에 1400원 돌파
(종가기준)

국가부도위기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를 가다

“100%대출 내집마련... 잔치는 끝났다”

집값 급락-대출이자 급등에 서민들 망연자실
“오랫동안 분에 넘치는 생활... 이제 고통의 시작”

금리 추가인하·경기부양 추경예산 검토

보험사들도 대출자금 회수

이성태 한은 총재 “내년 성장률 3%대”

국정감사서 첫 공식 언급

한은, 기관투자가에 돈 공급

“주식매도 예방”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매입 추진

230개 시·군·구, 40~70개로 통폐합

행정체제개편 특위 내달초 가동... 기존 광역 시·도는 존속